

2011년도

### 문화재위원회(민속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록

- 일 시 : 2011. 8. 8(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강철(위원장), 고부자, 김경표, 김명자, 김응수, 이해준, 장현덕, 정명섭(이상 8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b>【심의사항】</b>		
1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호) 하회~병산 간 선비길 조성	공개
2	안동 하회마을(중민 122호) 주변 전통호텔 건립	공개
3	경주 양동마을(중민 189호) 녹색길(양반길) 조성	공개
4	경주 양동마을(중민 189호) 주변 기계천 양동제 및 제방 우회도로 정비	공개
5	아산 외암마을(중민 236호) 군도7호 확포장공사(인도 설치)	공개
6	성읍 민속마을(중민 188호) 내 단독주택 신축	공개
7	성주 한개마을(중민 255호) 숲 가꾸기 사업	공개
8	괴산 청천리고가 (중민 147호) 주변 신헌 신축	공개
9	영동 규당고택(중민 140호)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10	영동 규당고택(중민 140호) 주변 단독주택(12동) 신축	공개
11	안동 권성백고택(중민 202호)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2	울현동 물체당(중민 174호) 주변 경로당 신축	공개
13	진접 여경구가옥(중민 129호)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중민 124·125)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15	선교장(중민 5호)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16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야외 전통문화관 조성	공개
<b>【검토사항】</b>		
17	장흥 신와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 검토	공개
18	장흥 오현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 검토	공개
19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 검토	공개
20	장흥 죽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지정 검토	공개
<b>【보고사항】</b>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공개

# 심 의 사 항

## 1. 안동 하회~병산 간 선비길 조성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지정구역 내 하회~병산 간 선비길 조성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길은 하회 ~ 병산 간 기존의 옛 산길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회~병산 간 선비길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동시장(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병산리 일원
- (4) 사업내용 : 하회 ~ 병산 간 선비길 조성
  - 자연석 돌수로 설치 : L=1,587m
  - 수목식재 : L=1,280m
  - 편의시설 : 정자(1개소), 평의자(1개소), 목재테크(20m), 목재테크계단(60m)
- (5) 사업비 : 422백만원 (국비 211, 도비 63, 시비 148)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7.28)

- 선비길은 옛 부터 마을에서 활용해왔던 길로써 신설하는 길과는 다르므로 기능적으로 훼손된 곳을 보수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
- 배수로는 자연 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되 자연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휴게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지형적으로 적절한 곳에 소박한 쉼터 개념으로 만들 것
- 자연 수림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위적 경관 식재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하되,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 2. 안동 하회마을 주변 전통호텔 건립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전통호텔 건립을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안동 하회마을 주차장 인근지역에 한옥형태의 전통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 심의('10.10.25) 결과, 민속+세계유산분과 합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여 보류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66-5번지 외 8필지
- (4) 사업내용 : 전통호텔 건립(1차 소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된 사항임)
  - 안채(객실) : 262.46㎡(79.39평) / 정면 6칸, 측면 9칸, 맞배·팔작지붕, 3·5량가
  - 대문채(관리직원 숙소) : 28.60㎡(8.65평) /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3량가
  - 사랑채(객실) : 141.54㎡(42.81평) /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3·5량가
  - 새사랑채(객실) : 100.44㎡(30.38평) /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3량가
  - 민속음식점(식당) : 196.02㎡(52.29평) / 정면 9칸, 측면 4칸, 팔작지붕, 5량가
  - 행랑채(관리동) : 66.96㎡(20.26평) / 정면 6칸, 측면 1칸, 팔작지붕, 3량가
  - 술도가(편의시설) : 64.35㎡(19.47평) / 정면 5칸, 측면 2칸, 초가지붕, 3량가
  - 샤워실(편의시설) : 39.78㎡(12.03평) / 정면 4칸, 측면 1칸, 맞배지붕, 3량가
  - 정자(휴게시설) : 40.32㎡(12.20평) / 정면 4칸, 측면 2칸, 팔작지붕, 5량가
  - 외삼문 : 34.80㎡(10.53평) /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지붕, 3량가
- (5) 사업비 : 60억원(자부담)

### 라. 현지조사의견

[ 2010. 9.13]

- 전통풍치 및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를 수정·보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도록 함

[ 2010.11.15 : 합동(민속+세계유산)분과 1차 소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 다음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 사업의 기본지침과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함
- 건물의 배치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함
- 건물은 단동형태의 다양한 규모를 조합하여 설계함
- 조경계획은 지형지세를 최대한 이용하고, 곡선미가 나타나도록 함
- 건물은 전통마을의 풍취가 나타나도록 배치함
- 건물의 공동구간은 지하공간을 활용하도록 함
- 건물의 명칭도 전통숙박시설에 맞도록 강구함

[ 2011. 7.15 : 합동(민속+세계유산)분과 2차 소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 배치, 건물양식, 조경은 하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함
- 진입 시 직시되는 법면과 민속음식점은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어 거부감을 갖게 하므로 시각적으로 친근한 경관을 갖도록 함
- 이용객과 차량동선은 지형 및 건물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함
- 외삼문은 용도상 기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 연못은 자연풍경에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정자는 연못에 근접시키도록 함
- 초입의 유명무실한 야외극장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선이 자연스럽게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이상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함

**마. 참고사항**

**(1) 자자체 의견(안동시장)**

- 하회마을 관광지 내 관광지 특성에 맞는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수용여건을 조성하고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바람

**(2) 현상변경허가신청 경과사항**

신청내용	처분내용	비고
<p><b>&lt;2010. 9. 3 :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관리동) : 549.27㎡(166.15평) / 철근콘크리트조</li> <li>- 2층(식당동) : 277.47㎡(83.93평) / 정면9칸, 측면2칸, 팔작지붕, 7량가</li> <li>- 2층(숙박동) : 189.54㎡(57.34평) / 정면7칸, 측면5칸, 팔작지붕, 5량가</li> </ul> </li> <li>○ 숙박동 A형(2개동) : 147.60㎡(44.65평) / 정면6칸, 측면4칸, 팔작지붕, 7량가</li> <li>○ 숙박동 B형(2개동) : 305.28㎡(92.35평) / 정면16칸, 측면3칸, 팔작지붕, 7량가</li> <li>○ 외삼문 : 34.8㎡(10.53평) /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li> <li>○ 석교 1개, 방지 3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소위원회 (민속, 세계유산분과) 구성·운영 및 검토 후 재심의 (2010.10.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1503.96㎡ (454.94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동소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서류 보완 요청 (2010.11.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보완 제출 (2011. 7.12)</li> </ul>
<p><b>&lt;2011. 7.13 : 서류보완 제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채(객실) : 262.46㎡(79.39평) / 정면6칸, 측면 9칸, 맞배·팔작지붕, 3·5량가</li> <li>○ 대문채(관리직원 숙소) : 28.60㎡(8.65평) /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li> <li>○ 사랑채(객실) : 141.54㎡(42.81평) / 정면5칸, 측면4칸, 팔작지붕 3·5량가</li> <li>○ 새사랑채(객실) : 100.44㎡(30.38평) / 정면5칸, 측면3칸, 팔작지붕, 3량가</li> <li>○ 민속음식점(식당) : 196.02㎡(52.29평) / 정면9칸, 측면4칸, 팔작지붕, 5량가</li> <li>○ 행랑채(관리동) : 66.96㎡(20.26평) / 정면6칸, 측면1칸, 팔작지붕, 3량가</li> <li>○ 술도가(편의시설) : 64.35㎡(19.47평) / 정면5칸, 측면2칸, 초가지붕, 3량가</li> <li>○ 샤워실(편의시설) : 39.78㎡(12.03평) / 정면4칸, 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li> <li>○ 정자(휴게시설) : 40.32㎡(12.20평) / 정면4칸, 측면2칸, 팔작지붕, 5량가</li> <li>○ 외삼문 : 34.80㎡(10.53평) / 정면3칸, 측면1칸, 맞배지붕, 3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 실시 (2011. 7.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면적 : 995.274㎡ (301.07평)</li> </ul>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하되,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3. 경주 양동마을 녹색길(양반길) 조성**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내 주간선도로와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경주 양동마을 주간선도로 및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시청)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4
- (4) 사업내용 : 양동마을 녹색길(양반길)조성
  - 토 공 : 흙깎기 865㎡, 흙쌓기(토사) 145㎡
  - 배수 및 구조물공
    - BOX(4.0x1.5~5.0x1.5) L=29m
    - 평여울설치(B=3.0m, H=0.3m) 7개소
  - 호안공 : 자연석쌓기 A=674㎡, L=314m
  - 포장공 : 황토포장 T=15Cm~20Cm, A=9,115㎡, L=1,494m
  - 부대공 : 1식
- (5) 사업비 : 13억원(국비/행자부 특별교부금)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7.28)

- 셋강의 호안정비는 획일적인 단면보다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하고 석축의 경사도 자연스럽게 설계한다(단, 기존에 정비된 구간은 차후에 자문의견대로 고쳐나간다).
- 셋강은 동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해왔던 소중한 수(水)공간이므로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함
- 여울 설치 경사는 어도 형태로 설치하되 획일적으로 설치하지 말고 하천 경사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 아스팔트 포장은 철거하고 흙포장으로 하되 일정폭으로 하지말고 자연지형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한다.
- 하천에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하되,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1-04-04

## 4. 경주 양동마을 주변 기계천 양동제 및 제방 우회도로 정비

###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주변에 기계천 양동제 및 제방우회도로를 정비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경주 양동마을 주변 기계천 양동제 및 제방 우회도로 정비를 통해 관람객 및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문화재위원회 심의('11. 6.13) 결과, 현지 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경북 경주시 동천동 800 경주시청)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 「경주 양동마을」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및 인동리 일원
- (4) 사업내용 : 기계천 양동제 및 제방 우회도로 정비
  - 도로신설(우회도로) : L=586.0m, B(폭)=8.0m
  - 인도조성 : L=695.0m, B(폭)=3.5m
  - 토 공 : 흙깎기 4,043m<sup>3</sup>, 흙쌓기 12,468m<sup>3</sup>
  - 배 수 공 : 이중벽관 부설 L=536.0m, 우수받이 8개소, 플룸관 덮개 L=87.0m, 집수정 12개소, 도수로 L= 47.0m
  - 구조물공 : L형 옹벽 L=10.0m, 역T형 옹벽 L=94.0m, 케비온 매트리스 A=280.0m<sup>2</sup>
  - 포 장 공 : 아스팔트포장 A=5,952.0m<sup>2</sup>, 황토포장 A=2,083.0m<sup>2</sup>, 콘크리트포장 A= 947.0m<sup>2</sup>
- (5) 사업비 : 12억원(국비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7.12)

- ※ 아래의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인도는 굴다리 곡선도로와 신설 교각하부로부터 안전한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 양측의 조경석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함
  - 제방우회도로는 양측에 노면을 확보하여 관목 또는 야생 숙근, 초본류로 가드레일을 차폐하고 가드레일의 색채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함
  - 인도와 제방우회도로의 조경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도록 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하되,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1-04-05

## 5. 아산 외암마을 군도7호 확포장공사(인도설치)

###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주변 군도 7호에 인도를 설치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매표소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에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보행이 위험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아산시장(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64-5 외
  - 시점 :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송남초등학교 앞
  - 종점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외암마을 매표소 앞
- (4) 사업내용 : 군도 7호 확포장공사(인도설치)
  - 보도설치 : L=242.5m, B=2.0m
- (5) 사업비 : 239백만원(시비)

**라. 현지조사 의견(2011. 7.26)**

- 본 사업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상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됨. 그리고 건축공사가 아닌 도로공사로 문화재에 대한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단지, 외암마을이 민속마을인 관계로 도로면(특히, 배면)의 설계는 마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료도 주변과 조화가 되도록 선정함
- 그리고 전신주(도로면에 위치한)는 이설하고 가능하면 지중화로 추진함. 주차장과 굴다리 사이의 하천(용수로)은 마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형 하천으로 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하되, 관계전문가(문화재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

안건번호 민속 2011-04-06

**6. 성읍 민속마을 내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지정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성읍민속마을 지정구역 내(성곽 밖)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속분과 1차 회의('11. 2.14) 시 부결된 사항을 건물동수 및 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민속분과 2차 회의('11. 4. 4) 시에 고증자료 보완 후 재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자료 제출하였기에 재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 소재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875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지정구역 내)
- (4) 사업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

구분	기존신청	변경신청
대지면적	1,002㎡	변경사항 없음
건축면적	215.45㎡	97.92㎡
연 면 적	189.54㎡	82.8㎡
건물동수	5개동 - 건축면적 58.14㎡ : 1개동 - 건축면적 39.33㎡ : 4개동	2개동 - 건축면적 41.4㎡
건물높이	4.09m	3.89m
구 조	목조초가	변경사항 없음



**라. 보완내용**

- 주택 신축 부지인 662-5번지에 당초에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자료와 제주시 공무원이 동 자료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별첨 참조)

**마. 현지조사 의견(2011. 3.21)**

- 신축과 관련된 대지(Site)의 고증자료를 보완 후 재검토가 요망됨

**바. 참고사항(서귀포시장 의견)**

- 초가 형태의 외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민속분과 1차 회의 / '11. 2.14)결과에 따라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적의 조치 바람

**사. 의결사항**

- 가결

**[별첨1] 사실확인서(민원인 제출)**

**사 실 확 인 서**

□ 대 상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의

○ 물 건 : 건물 2동

○ 건 축 주 :

상기 지번상에 1940년대로부터 초가집 2동이 있었으나, 1990년도 초에 건물이 낡아 자체적으로 파옥을 한바가 있습니다.

건축주 금년 57세로 지금까지 성읍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지역주민으로서 금번 건축에 따른 건물2동이 실지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온바,

위 지번상에 건축물 2동이 1990년 초까지 존치되어 있었음을 사실 확인하며 이에 서명 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장

성읍민속마을 보존회장





성읍리 ○○○가옥 현상변경관련 조사 의견

□ 건축물대장 현황

- 소유자
  - 최 초 : 성읍리 662-1번지 ○○○
  - 현 재 : 성읍리 662-5번지 ○○○
-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95년 3. 28. 소유명의인 변경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
- 건축년도 : 1950년도

○ 건축내용

- 돌담초가 주택 49.58㎡
- 부속건물 돌담초가 부역 16.52㎡
- 부속건물 돌담초가 창고 29.75㎡

□ 조사결과

- 성읍리 662-5번지상 건축물 소재여부는 과거 남제주군 표선면장이 관리 하던 옛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기록은 성읍리 662-1번지상에 1950년도에 건축된 돌담초가 3동(주택, 부속건물부역, 부속건물 창고)이 기록되어 있다.
  - ※ 남제주군 표선면에서 관리하던 구 건축물대장 사본 참조
- 현재 성읍리 662-5번지상에는 기록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 현상변경신청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상에 있었던 초가 3동은 민원인과 마을원로 및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의 의견에 따르면 1992년에 건축물이 낡아 자체적으로 철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662-1번지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대장은 '92년에 현재의 성읍리 662-5번지상에 있었던 자체적으로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기록으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에 의거 정리가 되어야하나 건축주의 소홀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

- 현상변경 신청부지인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는
  - 2011년 분할된 부지로 '92년도 건축물이 남아 자체철거한 후로 건축물이 없는 내대지로서 농업부산물 적치, 농사용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 조사의견

- 현상변경 민원을 신청한 표선면 성읍리 662-5번지는 2011년도 표선면 성읍리 662-1번지에서 분할된 부지로서,
- 과거 기록된(분할되기 전, 성읍리 662-1번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현상변경신청 부지에 건축물 3동(돌담초가주택, 부속건물 부엌, 부속건물 창고)이 있었으며,**
- 건축물이 있었다는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마을원로 및 성읍민속마을보존회를 통한 확인결과 주장과 같으며,
- 92년도 건축물이 남아서 자체적으로 철거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민원인의 요청한 현상변경 신청한 부지에 50년대 이후부터 초가주택 3동이 있었던 곳으로 새롭게 의미없이 현상변경(신축)하는 사항과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조사자 : 도 문화정책과 문화재보수 주무관 ○○○  
 확인자 : 도 문화정책과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 ○○○

[별첨4] 토지대장

고유번호	5013032023-10662-0001	토지대장	도면번호	66	발급번호	20110714-0103-0001
토지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장 번호	2-1	처리시각	11시 32분 28초
지 번	662-1	축 적	비 고		작성 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역 면 적 (㎡)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명 칭		등록번호	
(05) 22.518㎡	(20)1973년12월31일 분할되어 본연의 -2동 부합	1975년1월1일	2801			
(05) 41.677㎡	(20)1992년7월10일 분할되어 본연의 -3, -4을 부합	1994년2월5일	662-1			
(06) 41.307㎡	(51)2008년7월1일 제주도 남제주군에서 행정관할구역변경	--- 이하 여백 ---				
(08) 4805㎡	(20)2011년11월18일 분할되어 본연의 -5를 부합					
종 류 수 장 일 연	1993년1월1일	1984년1월1일	1985년7월1일	1990년1월1일	1991년1월1일	1992년1월1일
토 지 등 급	45	105	120	125	130	136
개별공시지가기준일	2007년1월1일	2008년1월1일	2009년1월1일	2010년1월1일	2011년1월1일	154년1월1일
개별공시지가(원/㎡)	82,400	89,700	89,700	89,700	10,400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고유번호	5013032023-10662-0001	토지대장	도면번호	66	발급번호	20110714-0103-0001
토지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장 번호	2-2	처리시각	11시 32분 28초
지 번	662-1	축 적	비 고		작성 자	
토 지 표 시			소 유 자			
지 역 면 적 (㎡)	사 유	변 동 일 자	주 소			
		변 동 원 인	성 명 또는 명 칭		등록번호	
		--- 이하 여백 ---				
종 류 수 장 일 연	1993년1월1일					
토 지 등 급	105					
개별공시지가기준일						
개별공시지가(원/㎡)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고유번호	5019032023-10662-0005	도면번호	66	발급번호	20110714-0103-0002
토지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희면 상동리	장 번호	1-1	처리시각	11시 32분 35초
지번	662-5	속격	1:1200	비고	작성자

토지표시		소유자	
지목	연립(㎡)	사유	변동일자
(08)대	*1,092*	(21)2011년1월18일 662-1번에서 분할	2004년2월5일
	--- 이하 미표 ---		--- 이하 미표 ---
등기번호	수정번호	토지대장번호	등록번호
		(21)2011년1월18일	4981소유권지권
개발종사지가(㎡)	개발종사지가(㎡)	개발종사지가(㎡)	개발종사지가(㎡)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본 토지(일야)대장은 광물이므로 출력한 토지(일야)대장은 민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첨5] 건축물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필리번호	184								
소유자성명	주 소	의무면적	소유자성명	주 소	이동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동리 662-1			표선면 선희리 662-1						
건물종류	가옥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분류번호	면적	수	이동년월일
10	남제주군 표선면 상동리 662-1	동암초가	49.68	주거	주거	100	49.68	1	기각
11	남제주군 표선면 상동리 662-1	동암초가	16.62	주거	주거	100	16.62	1	기각
12	남제주군 표선면 상동리 662-1	동암초가	29.74	주거	주거	100	29.74	1	기각
<p>해권 변동 등기 제 18432 호 (1995.3.10) 에 의거 일부 건축물 면적 이기 재작성.</p> <p>지방간축서기부</p> <p>남제주군 표선면</p>									

**[이기 전]**

일반건축물대장(갑)									
필리번호	5213032023-1-066200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선희리			지번	662-1	발급번호	별지사항		
용도	0㎡ 연립주			면적	99.95㎡	구조	0		
건축면적	49.50㎡			유용면적	99.95㎡	층수	층수		
연면적	0%			용적률	0%	높이	높이		
건축물명					소유자명				
구분	층별	구조	높도	면적(㎡)	성질(용도)	주소	소유권자	변동일자	
수	1층	복합주	간격주택	49.58	주거(주거용)	표선면 선희리 662-1	신원	1995.05.10	
부1	1층	복합주	복합	6.52	주거(주거용)	표선면 선희리 662-1	신원	2011.03.25	
부2	1층	복합주	복합	29.75	주거(주거용)	표선면 선희리 662-1	신원	2011.03.25	
<p>이동년월일</p> <p>2011.03.25</p> <p>서귀포시</p> <p>서귀포시</p> <p>2011년03월25일</p> <p>이동년월일</p> <p>2011년 03월 25일</p> <p>서귀포시</p>									

**[이기 후]**

※ 622-1번지 분할하기 전 건물 3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며 현존하는 건물 3동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함

## 7. 성주 한개마을 숲 가꾸기 사업

### 가. 제안사항

경북 성주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주변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성주 한개마을 주변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경관을 한개마을과 연계하여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은 2010년도에 성주군에서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10. 6. 7)에서 조건부 가결(대상범위 7부능선 아래지역으로 축소 및 제거목 반출)로 승인된 사항이었으나,
  -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제거목 반출이 불가하여 미 실시 되다가, 이번에 숲 가꾸기 대상범위를 축소(72ha → 12ha)하여 재신청한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성주군수(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1 성주군청)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55호 「성주 한개마을」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신리 일대
- (3) 신청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신리 산 19임 외 7필지
- (4) 사업내용 : 숲 가꾸기 사업
  - 대상면적 : 12ha
  - 제거량 조사 현황

주수종	총제거량		ha당 잔존본수 (본)	ha당 제거량		
	본수(본)	재적(m <sup>2</sup> )		본수(본)	재적(m <sup>2</sup> )	제거율(%)
소나무	4,164	437.68	682	347	36.49	33.72%

- (5) 사업비 : 26,631,000원(국비50%, 지방비50%)

###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011. 7.21)

- 성주 한개마을의 역사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적 측면에서 「천연림 개량 숲 가꾸기 사업」의 경우, 사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대상구역을 명확히 설정한 후, 해당 식생 실측 조사 후 현황도면을 작성할 것
  - 식생정비기준(존치, 제거, 대체, 보식)을 마련할 것
  - 상기 작업 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2) 문화재청 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업 대상지는 한개마을의 배경 숲으로 경관보존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마을 숲에 대한 정비는 현재 진행 중인 한개마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 동 사업은 잡목을 제거하는 정도로 시행하였으면 함

### 마. 참고사항(성주시장 의견)

- 우리군 중요민속문화재인 성주 한개마을 내 임야를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적, 경관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자연경관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사업 대상지는 한개마을의 배경숲으로 경관보존을 최대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마을 숲 정비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잡목을 제거하는 정도로 시행하도록 함

## 8. 괴산 청천리고가 주변 신탁 신축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청천리고가」 주변에 신탁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괴산 청천리고가」 주변 신탁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청천신탁협동조합(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23-9)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청천리고가」
  -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6번지
- (3) 신청위치 :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62-54번지(문화재 외곽으로부터 140m 이격)
- (4) 사업내용 : 신탁 신축(지상 2층)
  - 사업면적 : 418.0㎡
  - 건축면적 : 251.58㎡, 연면적 : 492.14㎡
  - 건물높이 : 13.2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8.1)

- 문화재 주변에 기 형성된 물리적 환경으로 볼 때, 신청건물의 높이를 2m 정도 낮게 조정할 것 같으면 문화재 중심 시경관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사항<괴산군 의견>

- 청천리고가와 신청지는 140m 이격되어 있으며, 가운데에 청천농협창고(2층 높이 이상임)가 자리하고 있어 시계에서는 가려지는 위치임. 또한 도로 반대편이 높이 제한이 없는 구역이므로 당해문화재에서 조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견사항

- 조건부 가결
  - 신청건물의 높이를 2m정도 낮게 조정할 것

## 9. 영동 규당고택 주변 공동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영동 규당고택」 주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4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번지
- (3) 신청위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25-1번지(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420m 이격)
- (4) 사업내용 : 공동주택 신축(지하1층 지상 11층, 1동, 19세대)
  - 사업면적 : 763.0㎡
  - 건축면적 : 283.84㎡, 연면적 : 2,428.938㎡
  - 건물높이 : 32.8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8. 1)

- 영동 규당고택의 체계적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규당고택 일원의 경관보존관리(예: 왜소화방지, 스카이라인확보)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조정자료(예: 경관분석) 제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사항

#### <영동군 의견>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해당되는 지역으로 5층이하 건축물 신축 가능한 구역임
- 본 사업대상지는 당해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400여 미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 및 현상보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본 신청지 100여 미터 인근에 아파트 신축 관련 현상변경 허가가 된 바 있음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제출된 경관분석 결과 당해 문화재로부터 420m 떨어져 있고, 기허가된 공동주택(최고41.9m, 40세대)과 금번 신청 공동주택 예정지(최고32.85m, 19세대)는 35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며,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허가 공동주택보다 9m정도 낮추어 신축할 예정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가결

## 10. 영동 규당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영동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 주변에 단독주택(12동)을 신축 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영동 규당고택」 주변 단독주택(1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17-2번지
- (3) 신청위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산24-6\*8, 421-7번지(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50m 이격)
- (4) 사업내용 : 단독주택(12동) 신축(한옥 4동, 일반주택 8동, 지상1층~2층)
  - 사업면적 : 18,144㎡(1단지 8,670㎡, 2단지 6,754㎡, 도로 2,720㎡)
  - 사업위치 : 1단지(산 24-6), 2단지(산24-6~8), 도로(산24-6~8, 421-7)
  - 도로 폭 : 6m, 도로길이 : 330m

구 분	1단지(8동)				2단지(4동)	
	A TYPE(4동)	B TYPE(2동)	C TYPE(1동)	D TYPE(1동)	A TYPE(2동)	B TYPE(2동)
건축면적	106.92㎡	84.71㎡	116.63㎡	135.87㎡	135.87㎡	199.16㎡
연 면 적	98.19㎡	84.71㎡	189.64㎡	193.29㎡	193.29㎡	199.16㎡
건축높이	7.3m(1층)	5.28m(1층)	9.64m(2층)	7.55m(2층)	7.55m(2층)	6.51m(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싱글- 경사지붕	일반목구조 기와-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평슬라브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싱글-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싱글- 경사지붕	일반목구조 기와-경사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8. 1)

- 신축 예정건축 및 진입도로 개설시 현지반고와 계획고 사이에 절토량이 과도하게 발생하는바,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관리 측면에서의 원지형 보존 및 역사경관성 훼손이 심히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마. 참고사항(영동군 의견)

-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해당지역으로 원지형보존 구역임
-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당해 문화재와 근거리에서 위치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준공 후 문화재 주변 경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됨

###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큼



## 11.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 「안동 권성백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1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이며, 현지조사 후 현지조사 의견을 반영·보완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02호 「안동 권성백고택」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21-2
- (3) 신청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77(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20m 이격)
-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지상1층)
  - 사업면적 : 381.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93.40㎡
  - 건물높이 : 5.7m
  - 구조 : 경량목구조, 경사지붕(기와)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6.23)

- 신축예정지가 원지형 보존지역이나 당해문화재에 접해있는 이질적인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뒤편 좌측으로 옮겨 건립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됨
- 단, 지대가 높으므로 문화재와 배후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낮추고 문화재 방향으로는 차폐되도록 적절하게 수목을 식재토록 하고 건물의 색채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도록 함
-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계획고를 1m 낮추고, 신축예정지에서 문화재 방향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되도록 하였고, 기와는 돌회색, 벽체는 연황토색으로 보완제출 되었음('11.8.4)

### 마. 참고사항 <안동시 의견>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77번지는 가일수곡고택(중민 제176호)과 안동 권성백고택(중민 제202호) 주변으로 당해 문화재인 권성백고택의 배면 2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적581㎡중 381㎡를 대지로 전용하여 1층 농가주택을 조망되지 않는 곳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의결사항

- 가결

## 12. 울현동 물체당 주변 경로당 신축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울현동 물체당」 주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울현동 물체당」 주변에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74호 「울현동 물체당」
  - 소재지 : 예천군 유천면 울현리 142
- (3) 신청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울현리 132-1(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64m 이격)
- (4) 사업내용 : 경로당 신축(지상 1층)
  - 사업면적 : 471.0㎡
  - 건축면적 및 연면적 : 82.80㎡
  - 건물높이 : 6.0m
  - 구조 : 경량철골조, 적벽돌치장쌓기, 경사지붕(한식칼라강판기와)
  - 사업비 : 50,000천원(군비)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6.23)

- 노인회관은 마을의 공동시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건립예정지가 당해 문화재 전방의 주시 범위 내에 있어 원경과 전망의 시각선상에 놓일 뿐 아니라 건물양식도 다소 이질성을 띠고 있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논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사항<예천군 의견>

- 마을 주민들은 몇 년 동안의 노력 끝에 '11년 경로당 공사비를 확보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마을회의 결과 경로당 선정부지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물로서 마을에 위치하는 조건을 갖춘 빈 부지를 찾던 중 현재의 부지 밖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물체당과 약64m 떨어진 곳에 마을 경로당을 짓고자 현상변경 신청을 하였음
- 신축예정지가 울현동 물체당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현상변경 기준안에 1구역으로 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5천만원의 공사비 범위 내에서 외형을 최소한의 전통한옥형태로 갖추고자 설계함
- 현재, 마을주민들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공사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결정해야 하는 상황임으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재논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13.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 단독주택 신축 관련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물은 「진접 여경구가옥」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에서 기 허가한 사항(11.6.8)이나, 지붕의 형태 등의 변경으로 인한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3구역으로 허용기준을 넘어서므로 문화재청에 허가를 구한 사안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9호 「진접 여경구가옥」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13-1, 209-3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약 170m 이격)
- (4)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지하1층 지상 2층)

구 분	기 허가내용	변경허가 신청내용	비 고
사업면적	403.0㎡	407.0㎡	
건축면적	176.58㎡	188.10㎡	
연 면 적	406.41㎡	442.0㎡	
건물높이	10.843m	10.926m	
구 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신청위치	213-1, 209-2	213-1, 209-3	209-3에 편입

#### 라. 참고사항

##### (1) 남양주시 현지조사 의견(2011. 7.22)

- 조망되지 않는 곳에 기 허가를 득한 주택 신축공사 사업으로 당초의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변경하고 그 높이를 허용기준 보다 약 2m 남짓 초과하고 있으나, 계단실 옥탑부분이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2) 남양주시 의견

- 기존 경사지붕을 평지붕으로 만들어 높이가 일부 증가하였지만 문화재 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신청지가 문화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있어, 문화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가결

## 14.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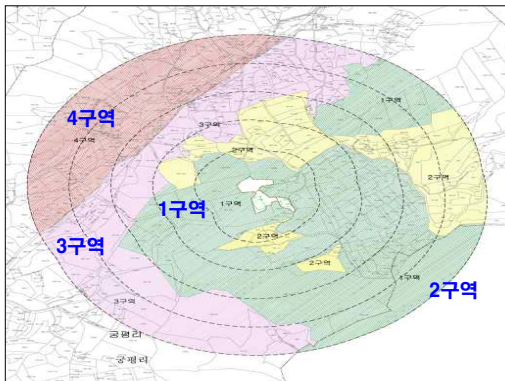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24·125호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기 시행(2008.12.23)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124·125호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신청(안)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신 청 인 : 화성시장
-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24·125호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108
- 신청내용 :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허용기준 3구역과 4구역은 도로(면도105호, 편도2차)로 문화재와 분리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후면에 위치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문화재와 충분히 이격되어 있음
  - 제3,4구역의 농경지에 농업용 시설이외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사항으로 동 지역의 공통사항 적용에 대하여 현재 문화재 의견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



※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2008.12.23)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 사항	○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에 건축을 제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011. 5.31)

-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중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이외에 건축을 제한함”의 적용은 1구역과 2구역에 한정하고, 동 문화재 산 능선 너머 도로 뒤쪽으로 위치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3구역과 4구역은 적용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의견

- 「화성 정용채·정용래가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단, 농경지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 ○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 +10%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이하) <b>(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b>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제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마. 의견사항

- 가결

## 15. 강릉 선교장 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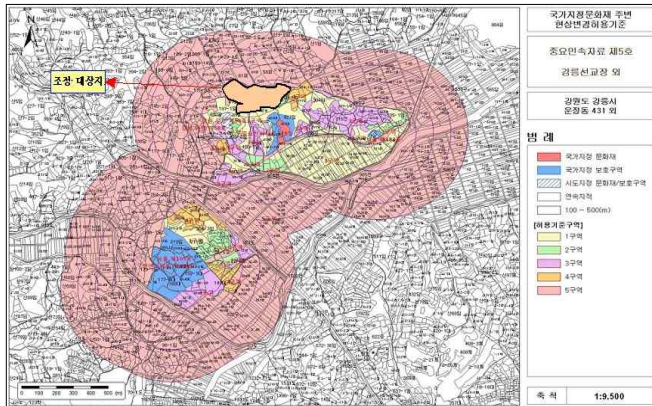
강원도 강릉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외 2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기 시행(2009.9.11) 중인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외 2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신청(안)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릉시장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 선교장」, 보물 제165호 「강릉 오죽헌」,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 (3) 신청내용 : 강릉 선교장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강릉 선교장 배후면에 해당되는 2구역은 강릉 선교장 배면 야산 등에 의한 지형적 요건으로 차폐가 되는 곳으로, 강릉 선교장 배면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2구역에서 4구역으로의 구역조정



※ 기 시행중인 현상변경허용기준(2009.9.11)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신축·증축 허용 (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신축·증축 허용 (3층 이하)	
제5구역	○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011. 7. 8)

- 강릉 선교장 좌측편 길과 연계하여 통경축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현재의 양호한 자연경관이 보존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의견

- 조정 요청한 지역은 강릉 선교장 배면 야산 등의 지형이나 배후면 좌측편 길과 연계하여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이 보존되고 있어 기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 마. 의결사항

- 가결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현재 허용기준을 적용

## 16.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야외 전통문화관 조성

### 가. 제안사항

전북 고창군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 야외 전통문화관 조성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창 오거리 당산 주변을 정비하고 전통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및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창군수(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2)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 (3) 신청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75 일원
- (4) 사업내용 : 전통문화관(지하 1층, 지상 1층), 야외공연장
  - 전통문화관(건축면적 87.75㎡, 연면적 : 335.79㎡)
    - 지하1층: 면적 248.04㎡ / 철근콘크리트조 / 전통문화 체험실, 탈의실, 화장실 등
    - 지상 1층: 면적 87.75㎡(정면 3칸, 측면 3칸) / 한식목조, 찰작지붕, 한식기와)
- (5) 사 업 비 : 14억원[국비(문화체육관광부 광역특별회계) 7억, 군비 7억]

### 라. 현지조사 의견(2011. 7. 29)

- 고창읍성과 고창오거리당산의 보존지역과 관련된 현상변경허가 신청구역으로, 당산 주변의 정비와 함께 현재 신청된 건축의 디자인 성격과 형태가 기존의 역사·문화적 공간과 조화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마. 참고사항(고창군청 의견)

- 고창읍내에 위치한 고창읍성 및 오거리당산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판소리 박물관, 동리국악당, 문화의 전당 등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바. 의결사항

- 보류
  - 당산 주변의 정비와 함께 현재 신청된 건축의 디자인 성격과 형태가 기존의 역사·문화적 공간과 조화되도록 수정·보완한 이후 재심의

## 17. 장흥 신와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소재 '장흥 신와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9호 '장흥 위봉환가옥(장흥 신와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 (2) 문화재 신청명칭 :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소유자/관리자 : 위재경
  - 수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1,197㎡<1필지>)  
- 건축물 지정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	문간채
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우진각지붕	골슬레이트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1고주5량	3평주5량	3평주5량	3량	3량
면적	정면6칸 ×측면2.5칸	5칸 ×측면2칸	정면1칸 ×측면1칸	정면3칸 ×측면2칸	정면4칸 ×측면2칸	정면4칸 ×측면1칸	정면3칸 ×측면1칸
연대	1925년경	1920년경	1948년	1937년	1937년	1950년경	1951년

- 토지 지정 면적 : 1,19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읍 방촌리	461	대	1,197	1,197	오금례	지정구역
합계	1필지		1,197	1,197		

# 검 토 사 항

**라. 현지조사의견( '11. 6. 3 )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
  - 자연지세를 따라 안채, 사랑채, 사당 등 그 터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위로 담장을 쌓아 전체적인 공간은 커다란 변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방초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
  - 현재의 건물은 당초의 기법을 따라 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나 형태가 변형되어 1920년대의 민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종류가 중요민속문화재로 되어있어 신주단지, 우물, 고서, 장롱 등 민속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
  - 전체적으로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임
  -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적인 면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으나 우물이라든가 고서 등의 가치를 더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
  - 근대시기의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대가족생활의 모습, 제석오가리, 제례 등 민속이 남아 있다.
  -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있지 않아 전체적인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집안 고문서 등과 함께 집안의 생활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할 것임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지사 의견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 신와고택은 가옥의 역사와 내력, 반가로서의 가옥의 건물구성, 개개 건물의 건축내용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장흥군수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신와고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30년대 집을 중창하면서 만들어진 가옥배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조서 : 상세내용 별첨4 참조**

**바. 의결사항**

- 보류
  - 건축적인 면 외에 민속, 자연환경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이후에 재심의



##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1.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장흥군 관산읍 傍村은 전남 남해안 강진군과 보성군 사이의 득량만 해안가 동경 126° 56' 47", 북위 34° 32' 43"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背山인 天冠山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호남정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로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자산(666m)지맥이다. 이 지맥은 서쪽으로 뻗어내려 왔는데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이고 천관산에서 우측으로 내려온 한 산 줄기가 백호에 해당되며 마을 앞 건너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이들 산자락에 둘러싸인 내동, 계춘, 신기, 호동, 탐동, 호산, 산저 등 7개 마을, 魏氏 집성촌은 마을 앞의 수동들을 그 배경으로 웅기종기 모여 풍수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 옛부터 행주형(行舟形)의 길지라고 전해왔다.
- 2) 또한 이 마을 주변에는 370여기의 고인들이 흩어져 있어 옛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매년 성조동 지석묘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 실학의 선구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비가 배출된 곳으로 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84년1월10일), 죽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6호), 오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7호), 위성열가옥 사당(전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위봉환가옥(전남도 민속자료 제39호), 방촌리 석장성(전남도 민속자료 제33호), 방촌리 지석묘군(전남도기념물 제134호), 별신제.기우제 등 민간신앙,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大同契, 社祭契이 전승되고 있어 1993년 문화체육부에서 전통문화시범마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위씨 문중 등 이 마을에서 보관되어 오던 장흥위씨족계세계도(조선 후기), 흥패, 교지등 방촌관련 유물은 현재 2005년 건립된 방촌유물전시관에 진열되고 있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시대 : 안채(1925년), 사랑채(1920년대), 사당(1948년), 곳간채(1937년)
- 2) 이 집은 1700년대 후반 위재경의 5대 조부인 위영향이 터를 잡았다고 한다. 이 집의 전체배치는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가 자연 지형에 따라 배치되고 대문주위로는 담장을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다. 안채 좌측에는 집안에서 사용하던 안샘이 있고 사랑채 앞 담장 바깥에는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바깥샘이 있다.

- 3) 집의 전체적인 향은 서향으로 안채는 정서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랑채는 많이 틀어져 있다. 행랑채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삼각형의 안마당을 형성하고 사랑채 좌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은 안채의 좌측 후면에 배치되어 있다.
- 4) 안채는 1925년에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고 약간 앞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옛 건물은 -자형의 추가로 사랑채와 비슷한 규모였다고 한다. 중수기 현판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현판이 도난당하여 그 정확한 연혁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 5)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5칸인데 측면에 퇴를 두어 의도적으로 7칸으로 하였다.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방과 고방이 있고 우측에 방과 부엌, 욕실이 있다. 그동안 부엌과 부엌방 전면의 공간을 변용하여 현대식 부엌과 화장실로 개조하였다. 구조는 정면은 장대석으로 기단을 축조하였고 우측은 외별대, 배면과 좌측은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았다. 주초는 정면과 측면은 장주초석을 놓았고 배면은 덩빙주초이다. 주초위에 방형기둥을 세우고 가구는 2고주 7량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 6) 사랑채는 192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5칸 규모이나 본래는 3칸의 추가였다고 한다. 평면은 좌측에 정지와 외양간을 두었고 우측에 방을 두었다. 방촌에서 사랑채 우측 1칸은 툇마루와 연결하여 넓은 마루가 놓여있는데 상을 당했을 때 빈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구조는 막돌 허튼층쌓기로 기단을 축조하고 덩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2고주 5량이고 한식기와를 사용한 우진각지붕이다. 1951년 보수를 했다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 7) 사당은 194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을 쌓고 원형 초석과 방형 초석을 놓은 다음 원형기둥과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1고주 5량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 8) 곳간채는 1937년에 건립되었는데 본래 초가집이었던 것을 30여 년 전에 일식기와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데 좌측부터 곳간,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면의 창고는 본래 마루였으며 욕실도 반칸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허튼층 쌓기로 축조한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원형기둥을 세운다음 우진각지붕을 얹었다. 가구는 3평주 5량이다.
- 9) 헛간채는 1937년에 건립되었는데 건립당시에는 방앗간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창고와 축사로 구성되었다. 구조는 자연석 외벌대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평주 5량 구조이고 골슬레이트 우진각 지붕이다. 본래 지붕은 초가지붕이었다고 한다.

- 10) 축사는 195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축사와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1칸이다. 20여 년 전에 축사건물에 화장실을 두었다고 한다. 구조는 외벌대의 자연석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골슬레이트 맞배지붕이다.
- 11) 문간채는 1951년(檀紀四千二百八十年)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대문과 차고, 창고로 되어 있다. 본래 좌측 창고에는 누마루가 있어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후 1974년 누마루를 철거하고 차고로 사용하면서 현재의 서터문을 달았다고 한다. 구조는 자연석 덩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다.

**마. 종합의견**

- 1) 이 집은 1700년대 후반 위재경의 5대 조부가 터를 잡아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현재의 건물은 이미 연혁에서 밝혔듯이 안채 1925년, 사랑채 1920년대, 곳간채와 헛간채 1937년, 사당 1948년, 축사 1950년, 대문간채는 1951년에 중수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는 모두 일제강점기 이후 부재들이다. 그렇지만 전체지형은 변함이 없이 자연지세를 따라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 대문간채는 그 터를 유지하고 있고 주위로는 담장을 쌓아 전체적인 공간은 커다란 변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방초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일부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형되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용이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안채 옆의 안샘과 사랑채 바깥의 바깥샘은 이 집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집안에 아직 조사되지 않은 고서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건물은 당초의 기법을 따라 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규모나 형태가 변형되어 1920년대의 민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정문화재의 종류가 중요민속문화재로 되어있어 신주단지, 우물, 고서, 장롱 등 민속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방촌마을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노령산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인 천관산을 주산으로 하고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에 해당되며 천관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을 앞 건너의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 2) 방촌마을의 형국은 행주형(行舟形)으로 길지에 해당된다. 상잠산 자체는 비봉형(飛鳳形) 형국의 대길지로 여겨진다. 방촌마을에 처음 위씨들이 입향한 이후 서쪽으로 마을이 커지면서 위씨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 3) 이 집성촌은 고려 말 왜구를 피하여 내륙 깊숙이 피신한 장흥부가 조선 개국과 함께 장흥 중령산에 성을 쌓고 이주하였으나 터가 좁아 1422년(세종 4)에 관아를 옮기면서 위씨 일족이 터를 비워주고 이거하였는데 그중 위덕룡이 수령현에서 장흥 평화촌으로 옮겨 살았고 그의 네 아들인 1남 유형은 관산파로, 2남 유정은 행원파로, 5남인 진현은 방촌과 이웃한 당동으로 옮기게 된다. 신와고택은 유형의 4남인 진수가 분파한 이후 28세 손인 영형이 마을에 입향하고 30세 손인 준식이 건립하게 된다.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은 1700년대 후반에 위재경의 5대 조부인 위영형이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안채 좌측의 안샘과 사랑채 앞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바깥샘이 있다.
- 2) 집의 전체적인 향은 서향인데 안채는 정서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랑채는 많이 틀어져 있다. 행랑채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삼각형의 안마당을 형성하고 사랑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은 안채의 우측 후면에 있다.
- 3) 안채는 1925년에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물고 약간 앞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옛 건물은 -자형의 초가로 사랑채와 비슷한 규모였다고 한다. 중수기가 적힌 현판이 있었으나 도단당하여 정확한 연혁을 알 수 없는 상

태이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2.5칸인데 측면에 퇴를 두어 의도적으로 7칸으로 하였다.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방과 고방이 있고 우측에 방과 부엌, 욕실이 있다. 그동안 부엌과 부엌방 전면의 공간을 변용하여 현대식 부엌과 화장실로 개조하였다. 구조는 정면은 장대석으로 기단을 축조하였고 우측은 외별대, 배면과 좌측은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았다. 주초는 정면과 측면은 장주초석을 놓았고 배면은 덩벙주초이다. 주초위에 방형 기둥을 세우고 2고주 7량으로 가구를 결구한 다음 팔작지붕을 올렸다.

- 4) 사랑채는 192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5칸 규모이나 본래는 3칸의 초가였다고 한다. 평면은 좌측에 정지와 외양간을 두었고 우측에 방을 두었다. 방촌에서 사랑채 우측 1칸은 뒷마루와 연결하여 넓은 마루가 놓여있는데 상을 당했을 때 빈소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구조는 막돌 허튼층쌓기로 기단을 축조하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2고주 5량이고 한식기와를 사용한 우진각지붕이다. 1951년의 보수를 했다는 상량문이 발견되었다.
- 5) 사당은 194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을 쌓고 원형 초석과 방형 초석을 놓은 다음 원형기둥과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1고주 5량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 6) 곳간채는 1937년에 건립되었는데 본래 초가집이었던 것을 30여 년 전에 일식기와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데 좌측부터 곳간,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면의 창고는 본래 마루였으며 욕실도 반칸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허튼층 쌓기로 축조한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원형기둥을 세운다음 우진각지붕을 얹었다. 가구는 3평주 5량이다.
- 7) 헛간채는 1937년에 건립되었는데 건립당시에는 방앗간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은 창고와 축사로 구성되었다. 구조는 자연석 외별대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평주 5량 구조이고 골슬레이트 우진각 지붕이다. 본래 지붕은 초가지붕이었다고 한다.
- 8) 축사는 1950년대에 건립되었으며 축사와 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면 4칸, 측면 1칸이다. 20여 년 전에 축사건물에 화장실을 두었다고 한다. 구

조는 외별대의 자연석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골슬레이트 맞배지붕이다.

- 9) 문간채는 1951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대문과 창고, 창고로 되어 있다. 본래 좌측 창고에는 누마루가 있어 동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을 1974년 누마루를 없애고 창고로 사용하면서 현재의 서터문을 달았다고 한다. 구조는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다.

#### 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이 집의 지붕 중 일부는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형되었으며 내부에서도 일부 변용된 부분이 있다. 가능하다면 원형을 회복하였으면 한다.

#### 바. 종합의견

- 1) 이 집은 1700년대 후반에 위재경의 5대 조부인 위영향이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는데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안채 좌측의 안샘과 사랑채 앞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바깥샘이 있다.
- 2) 집의 전체적인 향은 서향인데 안채는 정서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랑채는 많이 틀어져 있다. 행랑채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삼각형의 안마당을 형성하고 사랑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은 안채의 우측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1925년에 건축되었으며 사랑채는 1920년대에, 사당은 1948년에, 곳간채는 1937년, 헛간채는 1937년, 축사는 1950년, 대문간채는 1951년에 건립되었다.
- 3) 전체적으로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일부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형되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용이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샘이 안채 옆의 안샘과 사랑채 바깥의 바깥샘으로 이루어져 민속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집안에 고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적인 면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으나 우물이라든가 고서 등의 가치를 더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신와고택(長興 新窩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집은 현 소유자 위재경(魏在庚, 1972 - )의 6대조 위영형(魏榮馨, 1808-1885)이 고흥에서 방촌에 처음 터를 잡은 곳이다. 이곳은 위씨가 마지막으로 새터를 잡아 신기마을이라고 한다. 이 마을 1800년대 초반 방촌 동쪽에 위씨 일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집들은 대체로 서향을 하고 있다. 신와고택도 서향으로 신와(新窩) 위준식(魏準植, 1870-1948)이 외동리 앞바다를 개척하여 공활한 수동농장(水洞農場)을 경영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1925년 이후 새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집은 현재 전라남도 민속자료 39호 '장흥위봉환(1930-2004)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신청은 원래 집을 헐고 다시 짓기 시작한 위봉환의 증조부 신준식의 호 신와(新窩)를 따서 '신와고택'으로 명명하여 하였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1) 이 집은 1800년대 현 소유자 위재경의 6대조 위영형이 터를 잡았지만, 현재 집은 1925년 이후 지었다. 안채(1925년), 사랑채(1920년대, 원래 초가), 사당(1948년, 2006년 재건축), 곳간채(1937년), 헛간채(1937년), 축사(1950년대), 문간채(1951년) 등으로 축사와 문간채는 대부분 신와 위준식이 완성한 집이다. 현 소유자의 고조부가 건립한 이 집에서는 1930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3대가 한집에 기거한 전통적인 가족생활방식을 엿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대시기 집의 확장, 민속생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 마.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1925년 처음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1937년까지 위준식이 집을 확장한 것과 그의 사후 1950년, 1952년 2차로 일부 확장하여 근대시기에 집의 확장과 이 시기에 3대가 거의 50여년간 한집에 거주하면서 볼 수 있는 가족친족생활, 의례, 등의 민속생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민속자료로서 학술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 바. 종합의견

1) 근대시기의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대가족생활의 모습, 제석오가리, 제례 등 민속이 남아 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있지 않아 전체적인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 집안 고문서 등과 함께 집안의 생활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최종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 <별첨 2>

## 의견서

- 문화재명 : 장흥 신와고택(新窩古宅)
- 신청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9호

(2002.11.27 지정, 지정명칭 : 장흥 위봉환 가옥)

장흥 신와고택은 방촌리 신기마을에 위치하는데, 이 집터는 장흥위씨 훈도공파 위영향(榮馨, 1808-1855)이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후손인 신와 위준식(新窩 魏準植[天植], 1870~1947)을 거치면서 형성된 곳으로 현재 건물로는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 헛간채, 문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채는 구옥을 헐고 약간 앞자리에 새로 지은 것으로 옛 건물은 '一'자형 4칸 초가였다고 하며, 좌측과 전면으로 퇴를 둔 정면 6칸 규모의 큰 건물이며, 사랑채는 현재 5칸 규모이나 본래는 3칸 초가였다고 하며 안채와 달리 사랑채는 입향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3칸 기본구조에 증축한 것이며,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집임.

장흥위씨 훈도공파 신와고택은 가옥의 역사와 내력, 반가로서의 가옥의 건물 구성, 개개 건물의 건축내용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8.7

전라남도지사

〈별첨 3〉

# 의견서

방촌마을은 총 106세대 246명(남 117, 여 129)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95호(90%)가 “장흥위씨”로 집성촌을 이룬 마을로

존재고택이 중요민속문화재 제 161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위성릉가옥(민자 제6호)·위성렬 가옥 사당(민자 제38호)·위봉환 가옥(민자 제39호)이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신와고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30년대 집을 중창하면서 만들어진 가옥배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가옥은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위봉환(현사망)가옥으로 명명되었으나, 학계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 특징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사망 또는 이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고택을 중창한 神窩 魏準植(1870-1947)선생의 호를 따서 神窩古宅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신와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방촌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촌마을전체를 박물관화 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마을로 육성하고자 함

2010. 1.

## 장 흥 군 수

〈별첨 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서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서

-장흥 신와고택-

- 문화재명 : 장흥 신와고택
- 신청종별 : 중요민속자료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9호(2002.11.27) 지정
- 지정명칭 : 장흥 위봉환가옥

#### ○ 문화재 현황

장흥 위봉환 가옥(신와고택)은 방촌리 신기마을에 위치하는데, 이 집터는 1800년대 초반에 위봉환의 5대조부인 위영형이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형성된 곳이다. 현재 건물로는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 헛간채, 문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안채는 1925년경에 구옥을 헐고 약간 앞자리에 새로 지은 것이다. 옛 건물은 ‘一’자형 4칸 초가였다고 한다. 이 건물이 바로 신기마을 입향 당시에 지은 건물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건물과 비교할 때 상당히 축소된 모습이다. 사랑채는 현재 5칸 규모이나 본래는 3칸 초가였다고 한다. 안채와 달리 사랑채는 입향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3칸 기본구조에 증축한 것이다. 증축시기는 불명확하나 안채 신축시인 1920년대가 아닌가 한다.

가옥의 전체 향은 마을향에 맞추어 서향으로 잡았다. 대지 우측면의 마을 안길에 남향으로 자리한 정면 3칸 문간채를 들어서면 사랑채 측면이 보인다. 안채는 대지 안쪽에 대지 축에 맞춰 반듯하게 자리한 반면 사랑채는 상당히 비틀어져 있다. 행랑채는 안채 앞에 직각 방향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며 헛간채와 축사 등은 사랑채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배치관계가 다소 자유롭다.

안채는 좌측과 전면으로 퇴를 둔 정면 6칸 규모의 큰 건물이다. 방촌마을에서 6칸 안채를 갖고 있는 가옥은 3가옥 정도이다. 건물 칸수는 정면 6칸으로 잡았으나 측면으로 반드시(위성렬 가옥[판서공파종택]만 제외) 퇴를 두어 의도적으로

7칸으로 하였다. 방촌사람들은 5칸도 길(吉)하나 7칸은 대길(大吉)하다고 믿어 그렇게 한 것이다. 4칸 집에서도 5칸을 맞추기 위해 측면으로 퇴간을 구성한 가옥도 있다.

내부는 정지, 큰방, 마루(대청), 작은방이 일렬로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 이중 정지와 대청은 각 2칸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 더욱이 집의 구조가 겹집형태로 되어 있어 대청의 경우는 크기가 4칸이나 되는 셈이다.

정지와 작은방 뒤쪽으로는 각각 정지방과 고방 등이 별도로 꾸며져 있어 대가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실들이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방은 3,4칸 집보다 그 크기가 상당히 늘어나(위봉환 가옥 : 2.7평) 당시 가족규모와 경제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고방 밑에는 보통 작은방의 난방을 위해 아궁이가 설치된다. 이로 인해 고방의 바닥면은 자연히 대청마루의 바닥면보다 1자 이상 높게 잡았다. 구조는 막돌로 축조된 높은 기단 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납도리집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전통 한와를 얹었다.

사랑채는 정면 5칸 규모의 건물이다. 내부는 우측 한칸은 앞으로는 마루, 뒤로는 방을 들였다. 계속해서 2칸 모두 방이 꾸며지고 그 다음으로 정지칸과 외양간을 두었다. 방촌에서 사랑채 우측 1칸은 보통 이 가옥과 같이 앞쪽에 뒷마루와 연결된 대청형식의 넓은 마루가 놓여지는게 특징이다. 한편 이곳은 상을 당했을 때 빈소의 공간의 되기도 한다. 구조는 안채와 같이 막돌초석 위에 방주를 세운 일반적인 납도리집이다.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집이다.

**○ 조사 검토 의견**

위봉환 가옥은 가옥의 역사와 내력, 반가(班家)로서의 가옥의 건물구성, 개개 건물의 건축내용 등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 명칭이 당초 도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라 <장흥 위봉환가옥>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중요민속자료 가옥 명칭 기준안에 따라 중건 당시 관련 인물(新窩 魏準植, 1870~1947)의 호를 넣어 <장흥 신와고택>으로 명칭을 삼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11-04-18

**18. 장흥 오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소재 ‘장흥 오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7호 ‘장흥 위성탁가옥(장흥 오헌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 (2) 문화재 신청명칭 :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 번지 외
  - 소유자/관리자 : 위성탁 외 1
  - 수량 : 일괄(건물 7동, 토지 4,945㎡<4필지>)
    - 건축물 지정 7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안행랑채	사랑행랑채	곳간채	차고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맞배지붕
구조	2고주7량	2고주5량	방주3량	3량	3량	1고주5량	5량
면적	정면6.5칸 ×측면3칸	5칸 겹집+ 정면3칸 결채	정면1칸 ×측면1칸	정면3칸 ×측면1칸	정면3칸 ×측면1칸	정면3칸 ×측면1칸	정면4칸 ×측면1칸
연대	1918년	1923년	1918년경	1936년	1923년경	1938년	1937년(대장)

- 토지 지정 면적 : 4,94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을 방촌리	680	임	274	274	위대순	지정구역
"	산 122	임	2,380	2,380	"	"
"	681-1	대	1,233	1,233	"	"
"	679	대	1,058	1,058	위성탁	"
합계	4필지		4,945	4,945		

**라. 현지조사의견( '11. 6. 3)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있으나 추가 보완조사 필요
  - 방촌마을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건축적인 품위를 지니고 있으나, 현존 건물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에 지어진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시키는 것은 한계성이 있지만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민속부분의 자료를 좀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해 추가조사 필요
  - 방촌마을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건축적인 내용과 품위를 지니고 있고, 특히 사랑채 좌측 곁채에는 목욕실이 있고 물을 데우는 아궁이와 “沐浴室”이라고 초각한 판이 남아 있으며 안채의 시렁이나 곁간채의 뒤풀이 등이 남아 있어 민속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단지 전체적으로 건축년대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이고, 그동안의 보수과정에서 담장 등의 양식이 원형과 혼용되고 있고 사랑채 곁의 담장이나 마구간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방치되는 등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중요민속문화재인 만큼 민속부분의 자료를 보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해 추가조사 필요
  - 근대시기의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대가족생활의 모습, 철륵단지, 제례 등 민속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현재에도 관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제대로 있지 않고, 전체적인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을전시관 등에 흩어져 있는 민속자료와 집안 민속자료, 그리고 고문서 목록 작성 등과 함께 집안의 생활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지정여부는 이런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지사 의견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 장흥 오현고택은 남도 대농 반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채, 연못 등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보존관리상태도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장흥군수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오현고택은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30년대 집을 중창하면서 만들어진 가옥배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큼

**(3)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 상세내용 별첨4 참조**

- 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바. 의결사항**

- 보류
  - 건축적인 면 외에 민속, 자연환경 등 기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이후에 재심의

##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1.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장흥군 관산읍 傍村은 전남 남해안 강진군과 보성군 사이의 득량만 해안가 동경 126° 56' 47", 북위 34° 32' 43"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背山인 天冠山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호남정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로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자산(666m)지맥이다. 이 지맥은 서쪽으로 뻗어내려 왔는데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이고 천관산에서 우측으로 내려온 한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되며 마을 앞 건너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이들 산자락에 둘러싸인 내동, 계춘, 신기, 호동, 탐동, 호산, 산저 등 7개 마을, 魏氏 집성촌은 마을 앞의 수동들을 그 배경으로 웅기종기 모여 풍수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 옛부터 행주형(行舟形)의 길지라고 전해왔다.
- 2) 또한 이 마을 주변에는 370여기의 고인들이 흩어져 있어 옛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매년 성조동 지석묘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 실학의 선구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비가 배출된 곳으로 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84년1월10일), 죽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6호), 오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7호), 위성열가옥 사당(전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위봉환가옥(전남도 민속자료 제39호), 방촌리 석장성(전남도 민속자료 제33호), 방촌리 지석묘군(전남도기념물 제134호), 별신제.기우제 등 민간신앙,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大同契, 社祭契이 전승되고 있어 1993년 문화체육부에서 전통문화시범마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위씨 문중 등 이 마을에서 보관되어 오던 장흥 위씨죽계세계도(조선후기), 흥패, 교지등 방촌관련 유물은 현재 2005년 건립된 방촌유물전시관에 진열되고 있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은 현 주인의 7대 조부인 윤취당(願醉堂) 위도순(魏道純)이 집터를 잡고 처음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사랑채 편액(願醉堂重建記)에 의하

면 현존 건물은 오헌(梧軒) 위계룡(魏啓龍)에 의하여 사당과 안채는 1918년, 사랑채는 1923년에 재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이 집의 전체배치는 남동향이며 집의 입구에는 연지가 있고 연지 뒤에 대문과 부속채, 헛간이 작업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뒤에는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 후면에는 사랑채와 안채를 축으로 그 좌.우에 곳간채와 아래채가 증정형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 3) 안채의 평면은 정면 6칸반, 측면 3칸으로 비교적 큰 규모이며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방이 있고 우측에는 방과 개조한 화장실이 있다. 구조는 2~3단의 견치석으로 기단을 쌓고 덩뽕주초를 놓은 다음 전면에는 방형 기둥을 세웠다. 후면에는 사다리형의 장주초를 세우고 전면보다 작은 방형 기둥을 세웠는데 벽체는 심벽구조에 백회마감을 하였다. 가구는 2고주 7량으로 홍예형 퇴보와 보아지를 사용하였다. 배면의 확장 부분은 서까래를 덧대어 연결한 관계로 보가 홍예형으로 휘어져 내려와 기둥과 결구하고 있다. 사랑채에는 <원취당중건기>에 의하여 1923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그후 1993년에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화장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평면은 -자형 5칸 겹집으로 좌측에 1칸의 누마루를 두고 우측으로 6개의 방을 두었다. 사랑채 좌측의 결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중문간과 목욕실, 측간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중문간은 사랑채와 안채를 분절하면서 이어주고 있다. 목욕실에는 물을 데워주는 아궁이가 남아 있으며 “沐浴室”이라고 초각한 현판이 남아있다. 기단은 막돌 바른층쌓기를 하고 기단을 세웠으며 후면은 외별대의 낮은 기단위에 주초를 놓은 다음 원형기둥과 방형 기둥을 혼용하였다. 가구는 천장에 반자가 설치되어 확인할 수는 없고 대청과 대문간채의 가구를 보면 2고주5량이다. 도리는 장여받침이 있는 납도리이다. 특이한 것은 정면 2칸에 있는 방 앞의 방형 초석인데 탐의 옥개석을 뒤집어 놓은 형상인데 주인의 말에 의하면 천관사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한다.
- 4)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구조는 낮은 기단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3량 가구에 맞배지붕이다.
- 5) 안행랑채는 상량목서에 의하면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꾼들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마당 맞은 편에 짝을 이루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고 곳간채가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방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외벌대 기단위에 덩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 6) 사랑행랑채는 19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창호공사를 하면서 해체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방과 곳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외벌대 기단을 쌓고 덩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우고 홑처마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 7) 곳간채는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막돌 기단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1고주 5량 가구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 8) 사랑채의 앞쪽에 계획된 연못에는 三神山을 상징하는 3개의 섬을 만들어 섬에는 백일홍, 수양버들, 소나무를 심었다.

#### 마. 종합의견

- 1) 이 집은 현재 주인의 7대 손인 윤취당 위도순이 처음 입향한 이후 오현 위계룡이 지은 집으로 사랑채의 편액에 의하면 사당과 안채는 1918년에 건축하고 사랑채는 1923년에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건물은 1918년에서 1923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이 집은 전체적으로 남동향 하였으며 집의 입구에는 연지가 있고 연지 뒤에 대문과 부속채, 헛간이 작업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뒤에는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 후면에는 사랑채와 안채를 축으로 좌우에 곳간채와 아래채가 중정형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위치하여 방촌마을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건축적인 품위를 지니고 있다.
- 3) 사랑채 좌측의 곁채에는 목욕실이 있고 물을 데우는 아궁이와 “沐浴室”이라는 초각한 판이 남아 있으며 안채의 시렁이나 곳간채의 뒤주 등이 남아 있어 민속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건물은 연혁에서 밝혔듯이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에 지어진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시키는 것은 한계성이 있지만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민속부분의 자료를 좀더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오현고택(長興 梧軒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방촌마을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노령산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인 천관산을 주산으로 하고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에 해당되며 천관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을 앞 건너의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 2) 방촌마을의 형국은 행주형(行舟形)으로 길지에 해당된다. 상잠산 자체는 비봉형(飛鳳形) 형국의 대길지로 여겨진다. 방촌마을에 처음 위씨들이 입향한 이후 서쪽으로 마을이 커지면서 위씨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 3) 이 집성촌은 고려말 왜구를 피하여 내륙 깊숙이 피신한 장흥부가 조선개국과 함께 장흥 중령산에 성을 쌓고 이주하였으나 터가 좁아 1422년(세종 4)에 관아를 옮기면서 위씨 일족이 터를 비워주고 이거하였는데 그중 위덕룡이 수령현에서 장흥 평화촌으로 옮겨 살았고 그의 네 아들이 1남 유형은 관산파로, 2남 유정은 행원파로, 5남인 진현은 방촌과 이웃한 당동으로 옮기게 된다. 오현고택은 22세 손인 정명이 마을에 집을 지은 후 현재의 집은 31세 손인 계룡이 건립하게 된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에는 현재 주인인 위성탁의 7대 손인 윤취당(願醉堂) 위도순(魏道純)이 처음 입향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오현(梧軒) 위계룡(魏啓龍)이 지은 집으로 사랑채의 편액(願醉堂重建記)에 의하면 사당과 안채는 1918년에, 사랑채는 1923년에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건물은 1918년에서 1923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이 집의 배치는 남동향의 직선 축을 큰 방향으로 하여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고 있다. 집의 입구에는 연지가 있으며 연지 뒤에 대문과 부속채, 헛간이 작업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뒤에는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 후면에는 사랑채와 안채를 축으로 좌우에 곳간채와 아래채가 중정형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 3) 안채는 사당과 같이 1918년에 건립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배면의 공간을 확장하였으며 25~26년 전에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4) 안채의 평면은 전체가 18칸에 이르는 매우 규모가 큰 집으로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방이 있고 우측에는 방과 개조한 화장실이

있다. 구조는 2~3단의 견치석으로 기단을 쌓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전면에는 방형 기둥을 세웠다. 후면에는 사다리형의 장주초를 세우고 전면보다 작은 방형 기둥을 세웠으며 벽체는 심벽구조에 백회마감을 하였다. 가구는 2고주 7량으로 홍예형 퇴보와 보아지를 사용하였다. 배면의 확장 부분은 서까래를 덧대어 연결한 관계로 보가 홍예형으로 휘어져 내려와 기둥과 결구하고 있다. 사랑채는 <원취당중건기> 편역이 걸려있는데 이에 의하면 1923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93년에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화장실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평면은 -자형 5칸 겹집으로 좌측에 1칸의 누마루를 두고 우측으로 6개의 방을 두었으며 사랑채 좌측의 겹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중문간과 목욕실, 측간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중문간은 사랑채와 안채를 분절하면서 이어주고 있다. 목욕실에는 물을 데워주는 아궁이가 남아 있으며 “沐浴室”이라고 초각한 현판이 남아 있어서 그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구조는 정면은 막돌 바른 층쌓기를 하고 기단을 세웠으며 후면은 외별대의 낮은 기단위에 주초를 놓은 다음 원형기둥과 방형 기둥을 혼용하여 세웠다. 가구는 천장에 반자가 설치되어 확인할 수는 없고 대청과 대문간채의 가구를 보면 2고주5량이다. 도리는 장여받침이 있는 남도리양식이다. 특이한 것은 정면 2칸에 있는 방 앞의 방형 초석인데 탑의 옥개석을 뒤집어 놓은 형상인데 주인의 말에 의하면 천관사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한다.

- 5) 사당은 1918년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구조는 낮은 기단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3량의 가구에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 6) 안행랑채는 상량목서에 의하면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꾼들이 기거하였다고 한다. 마당 맞은편에 짝을 이루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없고 곳간채가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방과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외별대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 7) 사랑행랑채는 19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창호공사를 하면서 해체보수를 하였다고 한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방과 곳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 외별대 기단을 쌓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우고 홑처마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 8) 곳간채는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인데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막돌 기단위에 막돌 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운다음 1고주 5량 가구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 9) 조경은 대문 전면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연못을 만들고 연못 안에 3개의 섬을 만들어 각각 섬에 백일홍, 수양버들, 소나무를 심었다. 사랑채 앞마당은 전부 원형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단풍, 철쭉 등을 심었으며 화단 주변 통로는 석창포가 심어져 있다.

#### 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그동안의 보수과정에서 담장 등의 양식이 원형과 혼용되고 있고 사랑채 곁의 담장이나 마구간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원형을 회복하고 관리에 철저하였으면 한다.

#### 바. 종합의견

- 1) 이 집은 현재 주인의 7대 손인 윤취당 위도순이 처음 입향한 이후 오현 위계룡이 지은 집으로 사랑채의 편역에 의하면 사당과 안채는 1918년에 건축하고 사랑채는 1923년에 건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건물은 1918년에서 1923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이 집은 남동향의 직선 축을 큰 방향으로 하여 사랑채와 안채를 연결하고 있다. 집의 입구에는 연지가 있으며 연지 뒤에 대문과 부속채, 헛간이 작업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 뒤에는 사랑채가 있고 사랑채 후면에는 사랑채와 안채를 축으로 좌우에 곳간채와 아래채가 중정형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 3) 그리하여 방촌마을의 대표적인 상류주택으로 건축적인 내용과 품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사랑채 좌측의 겹채에는 목욕실이 있고 물을 데우는 아궁이와 “沐浴室”이라고 초각한 판이 남아 있으며 안채의 시렁이나 곳간채의 뒤주 등이 남아 있어 민속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지 전체적으로 건축연대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전반에 이르고 있어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보수과정에서 담장 등의 양식이 원형과 혼용되고 있고 사랑채 곁의 담장이나 마구간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방치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나 중요민속문화재인 만큼 민속부분의 자료를 보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오헌고택(長興 梧軒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집은 방촌리 자연촌락인 호동마을에 위치하였다. 이 마을은 방촌리에 처음 정착한 위덕후(魏德厚, 1556-1606)의 셋째 아들 정명(廷鳴, 1589-1640)의 후손 도순(道純, 1748-1816)이 1700년대 방촌리의 또 다른 자연촌락 내동마을에서 분가하여 처음 현재 오헌고택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오헌고택은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집을 새로 지은 것은 오헌 위계룡(魏啓龍, 1870- 1948)이 1918년 안채를 중건하면서 부터이다. 위계룡은 현 소유자 위성탁(魏聖卓, 1926 - )의 증조부로 스승 면암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키자 호남의병 중군장으로 참전하였다. 항일운동과 학문에 박차를 가하여 유고10권을 남겼고, 보성웅치 모죽사에 배향되어 있다. 이 집은 1986년 전라남도 민속자료 7호로 '장흥위성탁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지정 신청은 집을 지은 위계룡의 호 오헌를 따서 '오헌고택(梧軒古宅)'이라 명명하여 하였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1) 현재 집은 1918년 이후 지었다. 안채(1918년), 사랑채(1923년), 사당(1918년 추정), 안행랑채(1936년), 사랑행랑채(1923년, 추정), 곳간채(1938년) 등으로 모두 오헌 위계룡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집에서는 1920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3대가 한집에 기거하였으며, 신와는 현 소유자의 고조부이다. 따라서 근대시기 집의 확장, 민속생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사랑채에는 근대시기에 만든 목욕실도 있다. 현재 오성탁부부가 살고 있다.

#### 마.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1918년 처음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여 1938년까지 위계룡이 집을 중건 또는 확장 것으로 근대시기에 집의 확장과 이 시기에 3대가 거의 50여년 간 한 집에 거주하면서 볼 수 있는 주거공간의 이용, 가족친족생활, 의례, 등의 민속생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민속자료로서 학술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 바. 종합의견

1) 근대시기의 건물이지만, 전통적인 대가족생활의 모습, 칠림단지, 제례 등

민속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현재에도 관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제대로 있지 않고, 전체적인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을전시관 등에 흩어져 있는 민속자료와 집안 민속자료, 그리고 고문서 목록 작성 등과 함께 집안의 생활문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지정여부는 이런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별첨 2〉

### 의견서

- 문화재명 : 장흥 오헌고택
- 신청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7호  
(1986.2.7 지정, 지정명칭 : 장흥위성[탁]가옥)

장흥 오헌고택은 방촌마을의 천관산 입구에 자리 잡았으며 집 앞의 바깥마당에 연못을 파 작은 섬을 만들고 여기에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심어 정원시설을 하였으며, 건물은 남동향하여 직선축으로 배치되며 종선축의 깊숙한 곳에 안채가 가로로 놓이고 안마당을 사이로 사랑채가 축을 맞춰 배치되었으며 안마당 남서쪽에는 공간채를 두고 동쪽에는 아랫채를 배치하였고 사당까지 갖추고 있음.

안채는 一자형 5칸 전후좌우뒀집으로 우측 4칸은 후퇴에 반칸을 덧달아낸 뼈대를 하고 있다. 평면 구성은 좌측으로부터 작은방 1칸, 대청 2칸, 큰방 1칸이며 그 다음은 앞칸에 부엌을 두고 뒷칸에는 부엌방을 배치하였음.

안채 구조는 2고주 7량으로 덩빙 주춧돌을 놓고 사각기둥을 세웠으며 기단은 다듬돌 바른층 쌓기 2벌대 높이이며 장대석 마감을 하였으며 납도리집으로 지붕은 합각임. 사랑채는 一자형 5칸 겹집으로 좌측에 1칸의 누마루를 두고 다음에 위 아래로 6개의 방을 배치하였으며 다음 칸은 앞칸에 대문을, 뒷칸은 광으로 구성하였으며 납도리집으로 지붕은 합각임.

장흥 오헌고택은 남도 대농 반가의 대표적 사례로서 안채, 사랑채, 사당, 문간채, 연못 등 고루 갖추고 있으며 보존관리상태도 양호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8.

전라남도지사

## 〈별첨 3〉

### 의견서

방촌마을은 총 106세대 246명(남 117, 여 129)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95호(90%)가 “장흥위씨”로 집성촌을 이룬 마을로

존재고택이 중요민속문화재 제 161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위성룡가옥(민자 제6호)·위성렬 가옥 사당(민자 제38호)·위봉환 가옥(민자 제39호)이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오헌고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에서 30년대 집을 중창하면서 만들어진 가옥배치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가옥은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위성탁 가옥으로 명명되었으나, 학계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 특징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사망 또는 이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고택을 중창하신 梧軒 魏啓龍 (1870-1951)선생의 호를 따서 梧軒古宅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오헌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방촌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촌마을전체를 박물관화 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마을로 육성하고자 함

2010. 1.

장흥군수

#### 〈별첨 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 1. 문화재 가치 등 (조사자 및 검토자 의견)

###### 가. ○○○○

- 1) 사랑채의 후면 마루방에 덧댄 조그만 마루방은 안채와 직접 통하기도 하지만 바깥주인만이 사용하는 비밀스런 재미있는 공간이다. 안채 역시 후면의 은밀한 수장공간 역시 조선후기 근대 초기에 공통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간은 현장에서 구술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듯이 외부인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그곳에 숨겨놓은 것이 뭔지 가장 궁금했다고 한다. 비밀스러운 수장공간의 학술적 해석 역시 이러한 건물을 통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나. ○○○○

- 1) 장흥 위성탁가옥은 20세기 초반 남도 대농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내외에 농작업용의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 2) 사랑채영역과 안채영역이 공간구성상 대조를 이룬다. 사랑채 영역은 작고 다양한 소공간의 집합체인 반면, 안채는 넓은 마당을 앞에 두고 덩그러니 안채가 서있는 단순한 구성이다.
- 3) 안채는 원래 홑집이었으나 후에 후면부가 증축되어 두출백이 겹집으로 바뀌었다 (지붕의 용마루는 홑집의 위치에 그대로 소재한다). 남도지방의 주택이 시대를 거치면서 홑집에서 겹집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례이다.
- 4) 사랑채의 일부 (1칸)를 문간 (중문)으로 하고 있는데, 중문에 다가가면 진입동선과 나란히 위치하는 사랑채영역과는 담장으로 완전히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중문간 안에는 외부에서 안마당에 시선이 닿지 않도록 내외벽을 설치하였다(문간에 들어서서 일단 한 번 돌아가야 안마당에 이를 수 있다). 철저한 내/외, 남/녀의 공간분리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 5) 집 앞에 아름다운 연못을 가꾸어 놓고, 사랑채에의 접근, 안채에의 접근 모두 운치있는 공간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집 앞에 연못을 설정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아니지만, 본 가옥은 아름답고 잘 보존되어 있는 사례로서 특별하다.
- 6) 사랑채의 공간구성과 진입로에 탁월한 수법이 보이는 주택이다. 본 가옥

도 비교적 최근의 작례에 속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삼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다. ○○○○

- 1) 문화재 명칭이 당초 도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라 <장흥 위성탁(위성)가옥>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명칭 기준안에 따라 건립 당시 관련 인물(오헌 위계룡)의 호를 따라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넣어 <장흥 오헌고택[정사]>으로 명칭을 삼는 것이 바람직함.

##### 2. 심의의견

가. 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2006. 8. 24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 19.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소재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장흥 위성렬가옥사당(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 (2) 문화재 신청명칭 :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長興 魏氏判書公派宗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2
  - 소유자/관리자 : 위성렬
  - 수량 : 일곽(건물 5동, 토지 1,663㎡<2필지>)
    - 건축물 지정 5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아래채	곶간채
지붕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골슬레이트 우진각지붕
구조	2고주7량	1고주5량	3량	1고주5량	3량
면적	정면6칸 ×측면2칸	4칸 ×측면2칸	정면3칸 ×측면1.5칸	정면4칸 ×측면2칸	정면4칸 ×측면1칸
연대	일제강점기	1930년경	1908년	2005년	1937년

- 토지 지정 면적 : 1,663㎡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읍 방촌리	492	대	1,293	1,293	위성렬	지정구역
"	500	대	370	370	"	"
합계	2필지		1,663	1,663		

### 라. 현지조사의견( '11. 6. 3)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전체적으로 이 집은 장흥위씨가 처음으로 입향한 곳으로 회주목의 관아터였다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고, 사당은 천계년간에 건축되어 그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건물이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축년대가 짧고, 건축양식적으로 큰 특징이 없으며 사당 역시 몇 차례 보수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가치로는 미흡함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전체적으로 방초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일부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형되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용이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샘이 안채 옆의 안샘과 사랑채 바깥의 바깥샘으로 이루어져 민속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집안에 고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적인 면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으나 우물이라든가 고서 등의 가치를 더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사당이 전라남도 민속자료 38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집 전체가 변형과 신축이 최근까지 이루어지면서 민속자료들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 판단되어 심층 조사를 한다면 현재 정리된 고문서 이외에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됨

## 마. 참고사항

### (1) 전라남도지사 의견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 판서공파종택은 방촌의 내동마을 중앙의 안쪽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향이 서향인 관계로 자연 서향으로 안채와 사랑채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당, 안채, 사랑채, 그리고 헛간채로 구성되어있음
- 천계(天啓, 1621~1627)년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당은 그 규모와 양식, 그리고 연륜면에서 특히 주목되는 등 건물의 건립과 배치 등에서 역사성과 사회성을 알 수 있고, 특히 사당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 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2) 장흥군수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판서공파종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방에서 보기 드문 3칸의 사당을 소유하고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크므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지정함이 타당함

### (3)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서 : 상세내용 별첨 4 참조

##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1.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長興 魏氏判書公派宗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장흥군 관산읍 傍村은 전남 남해안 강진군과 보성군 사이의 득량만 해안가 동경 126° 56' 47", 북위 34° 32' 43"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背山인 天冠山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호남정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로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자산(666m)지맥이다. 이 지맥은 서쪽으로 뻗어내려 왔는데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이고 천관산에서 우측으로 내려온 한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되며 마을 앞 건너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이들 산자락에 둘러싸인 내동, 계춘, 신기, 호동, 탐동, 호산, 산저 등 7개 마을, 魏氏 집성촌은 마을 앞의 수동들을 그 배경으로 웅기종기 모여 풍수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 옛부터 행주형(行舟形)의 길지라고 전해왔다.
- 2) 또한 이 마을 주변에는 370여기의 고인들이 흩어져 있어 옛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매년 성조동 지석묘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 실학의 선구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비가 배출된 곳으로 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84년1월10일), 죽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6호), 오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7호), 위성열가옥 사당(전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위봉환가옥(전남도 민속자료 제39호), 방촌리 석장성(전남도 민속자료 제33호), 방촌리 지석묘군(전남도기념물 제134호), 별신제.기우제 등 민간신앙,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大同契, 社祭契이 전승되고 있어 1993년 문화체육부에서 전통문화시범마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위씨 문중 등 이 마을에서 보관되어 오던 장흥 위씨족계세계도(조선후기), 흥패, 교지등 방촌관련 유물은 현재 2005년 건립된 방촌유물전시관에 진열되고 있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은 방촌마을에 장흥위씨가 처음 입향할 때 자리 잡은 곳으로 고려시대 때 장흥부와 회주목의 관아터이기도 하다. 즉, 방촌마을 장흥위씨의

종가로 위덕화(1551~1598)의 장남 위정철(1583~1657)이 당동에서 방촌으로 옮겨오면서 자리를 잡은 곳이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사당, 아래채, 곳간채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뒤편 출입구에는 고목과 하마대가 위치하고 있다.

- 2) 집의 향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는 서향이고 곳간채는 남향인데 전체적으로 -자형 평면의 건물로 튼□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 우측에는 사당이 있다.
- 3) 안채는 일제강점기 말에 안채와 사랑채를 헐고 다시 지은 것으로 이전의 사랑채가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안채는 -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이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과 방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다. 본래는 마루의 뒤편에 고방을 2개 더 두었다고 한다. 구조는 외별대의 기단을 축조하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2고주 7량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 4) 사랑채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건립하였으며 2007년에 번와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자형의 평면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방과 대청,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은 본래 개방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샷시를 달아 내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는 정면과 우측면은 화강석 외별대 기단이고 배면은 자연석 기단으로 축조하였다.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1고주 5량이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인데 서까래는 보수하면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 5) 사당은 천개(天啓, 1621~1627) 년간에 초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규모와 양식, 재료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한다. 2004년 중수 당시 상량목서에 의하면 건립년대는 1908년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이다. 구조는 정면은 이별대 기단으로, 배면은 외별대 기단으로 축조한 다음 자연석 덩벙주초위에 밤나무 기둥을 세웠다. 현재도 일부 밤나무 기둥이 있다. 벽은 흙벽위에 판자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측면에 풍판을 달았다.
- 6) 아래채는 2005년에 신축하였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방과 마루, 보일러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시멘트기단위에 원형주좌의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운다음 팔작지붕을 얹었다.
- 7) 곳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창고와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에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도리의 3량 집이다.

## 마. 종합의견

- 1) 이 집은 방촌마을에 장흥위씨가 처음 입향할 때 자리잡은 곳으로 고려시대 때 장흥부와 회주목의 관아터이기도 하다. 즉, 방촌마을 장흥위씨의 종가로 위덕화(1551~1598)의 장남 위정철(1583~1657)이 당동에서 방촌으로 옮겨오면서 자리를 잡은 곳이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사당, 아래채, 곳간채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뒤편 출입구에는 고목과 하마대가 위치하고 있다. 집의 향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는 서향이고 곳간채는 남향인데 전체적으로 -자형 평면의 건물로 튼□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 우측에는 사당이 있다.
- 2) 안채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으며 사당은 1621~1627년 사이에 건축되었는데 특히 사당은 건축적인 측면에서 규모나 양식, 재료면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이었다. 1908년과 2004년에 보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밤나무 등의 재료는 일부 남아있기도 하다. 곳간채는 2005년에 건축되었다.
- 3) 전체적으로 이 집은 장흥위씨가 처음으로 입향한 곳이고 회주목의 관아터였다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당은 천계년간에 건축되어 그 건축적 가치가 매우 높았던 건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건축년대가 짧고 건축적 양식으로 큰 특징이 없으며 사당 역시 몇 차례의 보수를 거치면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해 보인다.

## 2.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長興 魏氏判書公派宗宅)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방촌마을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노령산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인 천관산을 주산으로 하고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에 해당되며 천관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을 앞 건너의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 2) 방촌마을의 형국은 행주형(行舟形)으로 길지에 해당된다. 상잠산 자체는 비봉형(飛鳳形) 형국의 대길지로 여겨진다. 방촌마을에 처음 위씨들이 입향한 이후 서쪽으로 마을이 커지면서 위씨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3) 이 집성촌은 고려말 왜구를 피하여 내륙 깊숙이 피신한 장흥부가 조선개국과 함께 장흥 중령산에 성을 쌓고 이주하였으나 터가 좁아 1422년(세종 4)에 관아를 옮기면서 위씨 일족이 터를 비워주고 이거하였는데 그중 위덕룡이 수령현에서 장흥 평화촌으로 옮겨 살았고 그의 네 아들인 1남 유형은 관산파로, 2남 유정은 행원파로, 5남인 진현은 방촌과 이웃한 당동으로 옮겨게 된다. 판서공파종택은 21세 손인 덕화가 마을에 입향한 후에 22세 손인 정철이 자리잡게 된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은 방촌마을에 장흥 위씨가 처음 입향할 때 자리 잡은 곳으로 고려시대 때 장흥부와 회주목의 관아터이기도 하다. 즉, 방촌마을 장흥 위씨의 종가로 위덕화(1551~1598)의 장남 위정철(1583~1657)이 당동에서 방촌으로 옮겨오면서 자리를 마련한 곳이다. 이 집은 안채, 사랑채, 사당, 아래채, 곳간채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뒤편 출입구에는 고목과 하마대가 자리하고 있다.
- 2) 집의 전체적인 향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는 서향이고 곳간채는 남향인데 전체적으로 -자형 평면의 건물로 튼□자형 배치를 하고 있다. 안채 우측에 사당이 있다.
- 3) 안채는 일제강점기 말에 안채와 사랑채를 헐고 다시 지은 것으로 이전의 사랑채가 있었던 자리라고 한다. 안채는 -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이다. 평면은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과 방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다. 본래는 마루의 뒤편에 고방을 2개 더 두었다고 한다. 구조는 외벌대의 기단을 축조하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2고주 7량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 4) 사랑채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건립하였으며 2007년에 변와공사를 하였다고 한다. -자형의 평면으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방과 대청,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대청은 본래 개방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샷시를 달아 내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는 전면과 우측면은 화강석 외벌대 기단이고 배면은 자연석 기단으로 축조하였다. 기단위에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1고주 5량이고 지붕은 우진각지붕인데 서까래는 보수하면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 5) 사당은 천개(天啓, 1621~1627) 년간에 초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규모와 양식 재료면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한다. 2004년 중수

당시 상량목서에 의하면 건립 년대는 1908년이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이다. 구조는 정면은 이벌대 기단으로, 배면은 외벌대 기단으로 축조한 다음 자연석 덩벙주초위에 받나무 기둥을 세웠다. 현재도 일부 받나무 기둥이 있다. 벽은 흙벽위에 판자로 마감하였다. 가구는 3량이고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측면에 풍판을 달았다.

- 6) 아래채는 2005년에 신축하였는데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방과 마루, 보일러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시멘트기단위에 원형주좌의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운다음 팔작지붕을 얹었다.
- 7) 곳간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으로 창고와 헛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면에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민도리의 3량 집이다.

#### 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일부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형되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용이 이루어졌는데 가능하다면 원형을 유지하였으면 한다.

#### 바. 종합의견

- 1) 이 집은 1700년대 후반에 위재경의 5대 조부인 위영향이 터를 잡고 조성하기 시작하여 형성되었는데 안채, 사랑채, 사당, 곳간채, 헛간채, 축사가 대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일곽을 이루고 있고 안채 좌측의 안샘과 사랑채 앞 담장 바깥에 위치하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바깥샘이 있다.
- 2) 집의 전체적인 향은 서향인데 안채는 정서향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랑채는 많이 틀어져 있다. 행랑채는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서 삼각형의 안마당을 형성하고 사랑채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당은 안채의 우측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1925년에 건축되었으며 사랑채는 1920년대에, 사당은 1948년에, 곳간채는 1937년, 헛간채는 1937년, 축사는 1950년, 대문간채는 1951년에 건립되었다.
- 3) 전체적으로 방촌마을 상류 민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일부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지붕으로 변형되고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변용이 이루어졌지만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샘이 안채 옆의 안샘과 사랑채 바깥의 바깥샘으로 이루어져 민속적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집안에 고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축적인 면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으나 우물이라든가 고서 등의 가치를 더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위씨판서공파종택(長興 魏氏判書公派宗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판서공파 종택은 장흥위씨(長興魏氏) 종가로 위덕화(魏德和, 1551-1598)의 장남 정철(廷詰, 1583-1657)이 현재 관산읍 당동에서 방촌 내동마을로 이거하면서 자리 잡은 곳이다. 장흥위씨는 1600년대 초반 이곳으로 옮겨와 정착한 시기로 그 원형의 터가 바로 이 종택 자리이다. 한편 이 터는 고려시대 말기 장흥부의 동헌터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집은 서향으로 자리하고 곳간채는 남향이다. 특히 사당은 안채우측에 별도의 담장을 돌리고 서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집의 사당은 현재 전라남도 민속자료 38호로 '장흥위성렬사당'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신청은 사당을 포함한 집 전체를 '장흥판서공파 종택'으로 하였다. 판서공은 이 마을의 입향조 위정철의 부 덕화가 사후에 판서공에 추증된 된 것에서 그 후손들이 판서공파가 된 것이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1) 이 집은 모두 일제시기에 새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 자리는 원래 사랑채가 있던 자리라고 한다. 사랑채는 80여년전 건물이다. 아래채는 2005년 신축하였다. 다만, 사당이 1620년대 지어진 것을 1908년 중수하였고 2004년 다시 중건하였다. 여기에 터를 잡은 위정철의 분재기(1657년)에 따르면 장남 위동전(1602-1667)에게 준 가옥규모는 사당 3칸, 기와집 20칸, 대청 5칸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당만이 그 자리에서 중수를 거듭하면서 전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어지고, 새로 지었다. 이 집은 사당을 중수한 이외에 일제시기와 현대 지은 집으로 내부 주거공간이나 민속 생활 등에서 특이 한 점은 없다.

#### 마.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1) 이 집은 사당을 원래의 위치에서 2004년 중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민속자료로서 특성은 제례 이외에는 조사가 가능한 것이 거의 없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바. 종합의견

1) 사당이 전라남도 민속자료 38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집은 전체가 변형과 신축이 최근까지 이루어지면서 민속자료들도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은 심층조사를 한다 하여도 현재 정리된 고문서 이외에는 흔적을 찾기 힘들다. 문중의 입장에서는 장흥위씨 종택으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지만, 민속자료로서는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별첨 2>

## 의견서

○ 문화재명 : 장흥위씨 판서공파종택과 사당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지정일 : 2002. 11. 27, 지정명칭 : 위성렬 가옥 사당)

○ 소재지 :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2

○ 시대 : 조선시대

장흥 방촌마을은 장흥위씨 집성촌으로 임진왜란이 지난 17세기 초엽에 동족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위덕화(1551~1598, 판서공)의 장남 위정철(1583~1657) 등이 방촌으로 옮겨오면서 자리를 마련한 곳이 본 가옥은 그 판서공파의 종택에 해당되며, 이 자리는 고려시대 장흥부의 동헌이 있던 터로 알려지고 있음.

판서공파종택은 방촌의 내동마을 중앙의 안쪽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향이 서향인 관계로 자연 서향으로 안채와 사랑채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당, 안채, 사랑채, 그리고 헛간채로 구성되어 있음

이 가운데에서 천계(天啓, 1621~1627)년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당은 그 규모와 양식, 그리고 연륜면에서 특히 주목되며, 위정철이 재산을 분배한 고문서(1657년)를 보면 장자인 위동전(東筮, 1602~1667)에게 전해진 가옥의 규모는 사당 3칸, 기와집 20칸, 대청 5칸(대지 1석 50부 1속)에 이르렀는데 이 가옥은 17세기 초반(1620년경)에 마련되지만, 뒤에 건물의 배치가 바뀌게 되고 사당만이 원형대로 전하고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집이며 측면 반칸은 퇴간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종가집 사당의 기본구조임.

장흥 방촌마을은 대표적인 집성촌으로 역사나 민속,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진 마을이고, 판서공파종택은 건물의 건립과 배치 등에서 역사성과 사회성을 알 수 있고, 특히 사당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008.7

전라남도지사

〈별첨 3〉

# 의견서

방촌마을은 총 106세대 246명(남 117, 여 129)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95호(90%)가 “장흥위씨”로 집성촌을 이룬 마을로

존재고택이 중요민속문화재 제 161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위성렬가옥(민자 제6호)·위성렬 가옥 사당(민자 제38호)·위봉환 가옥(민자 제39호)이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판서공파종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방에서 보기 드문 3칸의 사당을 소유하고 있어 역사적, 민속학적, 건축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이 가옥은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위성렬가옥으로 명명되었으나, 학계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 특징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사망 또는 이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고택에 처음 터를 잡은 判書公 魏德和(1551-1598)선생을 기리는 의미로 판서공파종택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판서공파종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방촌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촌마을전체를 박물관화 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마을로 육성하고자 함

2010. 1.

## 장 흥 군 수

〈별첨 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서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조서

-장흥위씨 판서공파종택

- 문화재명 : 장흥위씨 판서공파종택
- 신청종별 : 중요민속자료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92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8호(2002.11.27) 지정
- 지정명칭 : 장흥 위성렬가옥 사당

#### ○ 문화재 현황

장흥 방촌지역은 전남의 남해안에 면하여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장흥군의 아래쪽 득량만 해안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방촌마을은 장흥위씨 집성촌으로 임진왜란이 지난 17세기 초엽에 동족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위덕화(1551~1598)와 장남 위정철(1583~1657)대에 방촌으로 옮겨오면서 자리를 마련한 곳이 현재의 위성렬 가옥으로 방촌마을 장흥위씨 판서공파의 종가이다. 이 자리는 고려시대 장흥부의 동헌이 있던 터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렬 가옥(판서공파종택)은 방촌의 내동마을 중앙의 안쪽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향이 서향인 관계로 자연 서향으로 안채와 사랑채 등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사당, 안채, 사랑채, 그리고 헛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천계(天啓, 1621~1627)연간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사당은 그 규모와 양식, 그리고 연륜면에서 특히 주목이 간다. 위정철이 재산을 분배한 고문서(1657년)를 보면 장자인 동전(東筮, 1602~1667)에게 전해진 가옥의 규모는 사당 3칸, 기와집 20칸, 대청 5칸(대지 1석 50부 1속)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가옥은 17세기 초반(1620년경)에 마련되지만, 뒤에 건물의 배치가 바뀌게 되고 사당만이 전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반의 맞배집이다. 측면 반칸은 퇴간으로 개방되어 있다. 종가집 사당의 기본구조이다. 구조는 막돌초석 위에 방주(밤나무)를 놓은

3량구조로 기둥 상부에는 주두를 놓고 창방을 걸었다. 창방과 주심도리 장혀 사이에는 주간마다 소로를 2구씩 배치하였다. 도리는 굴도리를 사용하였고 종도리 밑으로는 판대공을 놓았다. 후면과 양측면 벽은 흙벽 위에 판자로 마감하였다. 이 사당에는 현재 길이 3m, 높이 60cm, 너비 65cm의 장례시 사용하는 가마형태의 영여(靈輿)란 목구조물이 있다.

### ○ 조사 검토 의견

장흥 방촌마을은 전남의 대표적인 장흥위씨 집성촌으로 역사나 민속, 그리고 건축학적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진 마을이고, 그 판서공파 종가인 위성렬 가옥은 건물의 건립과 배치 등에서 역사성과 사회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당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문화재 명칭이 당초 도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라 <장흥 위성렬가옥 사당>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중요민속자료 가옥 명칭 기준안에 따라 입항 당시 관련 인물(호조판서공 魏德和, 1551~1598)의 종파 태호를 넣어 <장흥위씨 판서공파종택>으로 명칭을 삼는 것이 바람직함

안건번호 민속 2011-04-20

## 20. 장흥 죽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소재 '장흥 죽헌고택'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6호 '장흥 위성룡가옥(장흥 죽헌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 (2) 문화재 신청명칭 : 장흥 죽헌고택(長興 竹軒古宅)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47번지
  - 소유자/관리자 : 위성룡/고영애
  - 수량 : 일괄(건물 4동, 토지 1,455㎡<1필지>)
  - 건축물 지정 4동

구분	안채	사랑채	사당	헛간채
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구조	1고주7량	2고주5량	3량	3량
면적	정면6칸 ×측면2.5칸	정면4칸 ×측면2칸	정면1칸 ×측면1칸	정면4칸 ×측면4칸
연대	1946년	1921년	미상	1946년경

- 토지 지정 면적 : 1,45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관산을 방촌리	477	대	1,455	1,455	위성룡	지정구역
합계	1필지		1,455	1,455		

**라. 현지조사의견( '11. 6. 3 ) : 상세내용 별첨1 참조**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전체적으로 이 집은 이 고장의 상류가옥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랑채의 정면 차양 칸은 우리나라 일반민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 그러나 건축 년대가 1920년대와 1940년대라는 점은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건축물 이외의 민속자료등의 관련 유물도 없는 상태이다.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건축 년대가 1920년대와 1940년대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는 미흡하다 판단됨

<○○○>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미흡
  - 민속자료들은 거의 사라진 상황으로, 중요민속문화재로서는 의미를 가질 만한 자료가 없어 지정 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등이 미흡하다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전라남도지사 의견 : 상세내용 별첨2 참조**

- 장흥 죽헌고택은 일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남도지방의 반가/부농의 고택사례로서 당시 새로운 거주생활에 대응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으며, 진입공간의 설정수법은 입안자의 수준 높은 미적 안목을 짐작케 하며, 계단을 오르면서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하여 공간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특징이 있으며, 관리도 잘 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2) 장흥군수 의견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죽헌고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솟을대문이 없는 점, 집에 누각이 없는 점 등 방촌마을 양반가의 특징을 잘 간직한 집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 상세내용 별첨4 참조**

- 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지정가치 미흡

## 〈별첨 1〉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 보고서

### 1. ○○○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죽헌고택(長興 竹軒古宅)

####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1) 장흥군 관산읍 傍村은 전남 남해안 강진군과 보성군 사이의 득량만 해안가 동경 126° 56' 47", 북위 34° 32' 43"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의 背山인 天冠山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호남정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로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자산(666m)지맥이다. 이 지맥은 서쪽으로 뻗어내려 왔는데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측릉이고 천관산에서 우측으로 내려온 한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되며 마을 앞 건너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이들 산자락에 둘러싸인 내동, 계춘, 신기, 호동, 탐동, 호산, 산저 등 7개 마을, 魏氏 집성촌은 마을 앞의 수동들을 그 배경으로 웅기종기 모여 풍수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배의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 옛부터 행주형(行舟形)의 길지라고 전해왔다.

2) 또한 이 마을 주변에는 370여기의 고인들이 흩어져 있어 옛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매년 성조동 지석묘에서 기우제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 실학의 선구자인 존재 위백규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비가 배출된 곳으로 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84년1월10일), 죽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6호), 오헌고택(전남도 민속자료 제7호), 위성열가옥 사당(전남도 민속자료 제38호), 위봉환가옥(전남도 민속자료 제39호), 방촌리 석장성(전남도 민속자료 제33호), 방촌리 지석묘군(전남도기념물 제134호), 별신제.기우제 등 민간신앙,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大同契, 社祭契이 전승되고 있어 1993년 문화체육부에서 전통문화시범마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위씨 문중 등 이 마을에서 보관되어 오던 장흥 위씨족계세계도(조선후기), 흥패, 교지등 방촌관련 유물은 현재 2005년 건립된 방촌유물전시관에 진열되고 있다.

#### 라. 연혁·유래 및 특징

1) 이 집의 건립년대는 안채의 경우 대청 상량문에 “龜歲丙戌四月二十日甲午豎柱二十二日丙申巳時上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46년에 건립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사랑채는 남쪽에 걸린 <桂春精舍上樑文>에 “己未七月八日始役 辛酉三月十日竣工 二十六日落成 辛酉三月二十六日竹軒散人魏啓昌揭”라는 기록으로 보아 죽헌 위계창이 191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1년에 완공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sup>1)</sup>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약 80여년 전에 본래 있었던 고가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 헛간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2) 이 집의 배치는 서향으로 우측의 출입구는 지형적인 고저차로 여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오르도록 되어 있다. 계단 좌측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사랑채와 안채는 높은 단을 경계로 안마당이 형성되면서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있으며 사랑채 좌측으로 헛간채가 있다. 안채 전면에 있던 ‘ㄱ’자 형의 안사랑채는 해방이후 훼손되었고 중문채는 건물을 해체하여 천관사의 칠성당 건물로 시주하였다고 한다.
- 3) 이 집의 안채는 사당과 같이 1946년에 건립되었으며 -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의 전후퇴를 둔 겹집형태이다.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과 부엌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다. 구조는 자연석을 다듬어 바른층쌓기로 세벌대를 쌓고 장대석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사각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대청 중앙에만 1고주 7량이고 양측면은 2고주 5량집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 4) 사랑채는 1921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전.후면에 퇴가 있다. 평면은 우측에 대청을 두고 중앙에 방을 두었으며 좌측에 부엌을 두었다. 전열과 후열의 마루방 사이에는 사분합문을 달아 필요에 따라 전체를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돌방 사이에는 호지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였다. 구조는 자연석을 다듬어 바깥쪽으로는 두벌대로 쌓고 안쪽으로는 네벌대로 쌓았다.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원기둥과 방형 기둥을 혼용하여 세웠다. 가구는 2고주 5량으로 팔작지붕을 얹었다.
- 5) 사랑채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전면에 가설된 차양인데 서향으로 하고 있는 집의 구조를 감안하여 햇볕이 들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창덕궁 연경당의 선향채,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정면에 쌍여닫이 판장문을 달고 안여닫이로 되어 있다. 구조는 외벌대 기단위에 자

1) “장흥군의 문화유적”과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에서는 사랑채의 건립년대를 안채와 같이 192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연석 덤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3량가구에 맞배지붕이다.

- 6) 헛간채는 안채와 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ㄱ'자 형 평면에 정면 4칸, 측면 4칸의 건물이다. 용도는 화장실, 창고 대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전면에 자연석 외벽대 기단을 쌓고 덤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우고 홀처마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마. 종합의견**

- 1) 이 집의 안채는 1946년에 건립되었고 사랑채는 1921년에 완공되었는데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약 80여 년 전 본래 있었던 고가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 헛간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2) 이 집의 배치는 서향으로 우측의 출입구는 단차로 인하여 여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오르도록 되어 있다. 계단 좌측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높은 단을 경계로 사랑채 뒤로 안마당이 형성되면서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있으며 사랑채 좌측으로 헛간채가 있다. 안채 전면에 있던 'ㄱ'자 형의 안사랑채는 해방이후 훼손되었고 중문채는 건물을 해체하여 천관사의 칠성당 건물로 시주하였다고 한다.
- 3) 전체적으로 이 집은 이 고장의 상류가옥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랑채의 정면 차양 칸은 우리나라 일반민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그러나 건축 년대가 1920년대와 1940년대라는 점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격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건축물 이외의 민속자료등의 관련 유물도 없는 상태이다.

**2.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죽헌고택(長興 竹軒古宅)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방촌마을은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노령산맥의 탐진지맥 남쪽 끝 봉우리인 천관산을 주산으로 하고 호동마을 뒤쪽의 양대산이 좌청룡에 해당되며 천관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온 산줄기가 백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마을 앞 건너의 동쪽에 위치 한 상잠산이 마을의 안산에 해당된다.
- 2) 방촌마을의 형국은 행주형(行舟形)으로 길지에 해당된다. 상잠산 자체는 비봉형(飛鳳形) 형국의 대길지로 여겨진다. 방촌마을에 처음 위씨들이 입향한 이후 서쪽으로 마을이 커지면서 위씨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 3) 이 집성촌은 고려말 왜구를 피하여 내륙 깊숙이 피신한 장흥부가 조선개국과 함께 장흥 중령산에 성을 쌓고 이주하였으나 터가 좁아 1422년(세종 4)에 관아를 옮기면서 위씨 일족이 터를 비워주고 이거하였는데 그중 위덕룡이 수령현에서 장흥 평화촌으로 옮겨 살았고 그의 네 아들인 1남 유형은 관산파로, 2남 유정은 행원파로, 5남인 진현은 방촌과 이웃한 당동으로 옮기게 된다. 죽헌고택은 유형의 5남인 진현이 마을에 입향한 후에 31세 손인 계창이 건립하게 된다.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이 집의 건립년대는 안채의 경우 대청의 상량문을 보면 “龜歲丙戌四月二十日甲午豎柱二十二日丙申巳時上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46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채는 남쪽에 걸린 <桂春精舍上樑文>에 “己未七月八日始役 辛酉三月十日竣工 二十六日落成 辛酉三月二十六日竹軒散人魏啓昌揭”라고 기록되어 있어 죽헌 위계창이 191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21년에 완공한 건물임을 알 수 있다.2)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약 80여 년 전에 본래 있었던 고가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 헛간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2) 이 집의 배치는 서향으로 좌향을 하고 있는데 우측의 출입구는 단차로 인하여 여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오르도록 되어 있다. 계단 좌측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사랑채와 안채는 높은 단을 경계로 안마당이 형성되면서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있으며 사랑채 좌측으로 헛간채가 있다. 안채 전면에 있던 'ㄱ'자 형의 안사랑채는 해방이후 훼손되었고 중문채는 건물을 해체하여 천관사의 칠성당 건물로 시주하였다고 한다.
- 3) 이 집의 안채는 사당과 같이 1946년에 건립되었으며 -자형 평면으로 정면 6칸의 전후퇴를 둔 겹집형태이다. 평면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과 부엌이 있고 우측에 방이 있다. 구조는 자연석을 다듬어 바른층 쌓기로 세벌대를 쌓고 장대석으로 마감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사각뿔대 주초를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대청 중앙에만 1고주 7량이고 양측면은 2고주 5량집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 4) 사랑채는 1921년에 건립되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전후면에 퇴가 있다. 평면은 우측에 대청을 두고 중앙에 방을 두었으며 좌측에 부엌을 두었다. 전열과 후열의 마루방 사이에는 사분합문을 달아 필요에 따라

2) “장흥군의 문화유적”과 “한국의 건축문화재-전남”에서는 사랑채의 건립년대를 안채와 같이 192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체를 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온돌방 사이에는 호지문을 달아 공간을 구분하였다. 구조는 자연석을 다듬어 바깥쪽으로는 두벌대로 쌓고 안쪽으로는 네벌대로 쌓았다.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원기둥과 방형 기둥을 혼용하여 세웠다. 가구는 2고주 5량으로 팔작지붕을 엮었다. 사랑채의 건축적 특징으로는 전면에 가설된 차양인데 서향으로 하고 있는 집의 구조를 감안하여 햇볕이 들지 않도록 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연경당의 선향재,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 등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 5) 사당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집으로 정면에 쌍여단이 판장문을 달고 안여단으로 되어 있다. 구조는 외벌대 기단위에 자연석 덩벙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운 다음 3량의 가구에 맞배지붕으로 하였다.
- 6) 헛간채는 안채와 같이 지었다고 하는데 'ㄱ'자 형 평면에 정면 4칸, 측면 4칸의 건물이다. 용도는 화장실, 창고 대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전면에 자연석 외벌대 기단을 쌓고 덩벙주초를 놓은 다음 방형 기둥을 세우고 홀처마에 맞배지붕을 엮었다.

**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1) 이 집의 안사랑채는 해방이후 훼손되었고 중문채는 건물을 해체하여 천관사의 칠성당 건물로 시주하였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원형을 회복하였으면 한다.

**바. 종합의견**

- 1) 이 집의 안채는 1946년에 건립되었고 사랑채는 1921년에 완공하였는데 집주인의 말에 의하면 약 80여 년 전에 본래 있었던 고가를 헐고 그 자리에 새로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 헛간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 2) 이 집의 배치는 서향으로 좌향을 하고 있는데 우측의 출입구는 단차로 인하여 여러 단의 계단을 통하여 오르도록 되어 있다. 계단 좌측으로 사랑채가 위치하고 있고 높은 단을 경계로 사랑채 뒤로 안마당이 형성되면서 안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 우측 후면에는 사당이 있으며 사랑채 좌측으로 헛간채가 있다. 안채 전면에 있던 'ㄱ'자 형의 안사랑채는 해방이후 훼손되었고 중문채는 건물을 해체하여 천관사의 칠성당 건물로 시주하였다고 한다.
- 3) 전체적으로 이 집은 이 고장의 상류가옥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사랑채의 정면 차양 칸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이러한 건축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건축 년대가 1920년대와 1940년대라는 점은 국가문화재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사료된다.

**3. 〇〇〇**

**가. 문화재 종류 :** 중요민속문화재

**나. 문화재 명칭 :** 장흥 죽헌고택(長興 竹軒古宅)

**다.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1) 집은 방촌리 7개 자연촌락 중 두번째로 큰 마을인 계촌동에 1700년대 말 경 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건립은 현 소유자 위성룡(魏聖庸, 1936 - )의 증조부 위계창(魏啓昌, 1861-1943)이 한 것이다. 계창은 계촌동에 처음 자리 잡은 위덕후(魏德厚, 1556-1606)의 둘째 아들 정렬(정렬, 1580-1656)의 자손인 인항공파가 아니라 덕후의 맏형 청계공 덕의(德毅, 1540-1613)의 후손으로 청계공파다.
- 2) 이 집은 현재 1986년 전라남도 민속자료 6호 장흥'위성룡(1936 - )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요민속자료 신청하면서 최초 건립자 위계룡의 호 죽헌(竹軒)을 부쳐 '장흥죽헌고택'으로 신청하였다.

**라. 연혁·유래 및 특징**

- 1) 집터는 1700년대 잡았지만, 집들은 1920년대 짓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위대량(魏大良, 1840-1951)이 중수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는 1946년 본래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랑채는 1921년 지었다고 하나, 집을 중수하면서 안채를 짓고, 사랑채, 헛간채 대문간채(1949년) 등을 지었다. 사당은 안채 안채 오른쪽 뒤쪽 높은 곳에 있으나, 건립시기는 모른다. 이 집은 1946년 이후 재건축 하였지만, 집의 구조상 전통적인 주거공간이나, 민속생활문화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흔적을 찾기는 힘들다.

**마.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1) 이 집은 실제 1946년 이후 새로 지은 것으로 70년을 넘지 못 하는 현대에 가까운 건물이다. 한옥의 특성상 전통적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민속자료로서 특성이랄 할 만한 것은 조사가 불가능하여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종합의견**

- 1) 1986년 전라남도 민속자료 6호로 지정되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민속자료들은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은 심층조사를 한다 하여도 특별히 체계적으로 정리 할 수있는 민속자료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요민속문화재로서는 의미를 가질 만한 자료가 없어 지정 기준으로 제시되는 학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



〈별첨 2〉

## 의견서

- 문화재명 : 장흥 죽헌고택
- 신청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 소재지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77
- 지정별 :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6호

(1986.2.7 지정, 지정명칭 장흥 위성릉가옥)

장흥 죽헌고택은 방촌마을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슬대문 사랑채, 안채, 사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릉지에 축조되어 담장과 사랑채, 안채의 지붕면이 위계(位階)가 있으며 정연한 느낌을 주는 전통 반가임.

안채는 一자형 6칸 전후퇴집이며 겹집의 형태이고 구조는 2고주 5량으로 남도리에 장혀를 받쳤고 대공은 판대공인데 등글게 어깨를 굴렸고 기둥은 사각기둥이며, 사랑채 전면에 햇볕을 막는 시설이 되어 있고 북쪽에는 누마루를 시설하였는데 구조는 2고주 5량으로 기둥에 창방을 돌리고 보아지를 끼웠으며 그 위에 주두를 놓았음.

장흥 죽헌고택은 일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남도지방의 반가/부농의 고택사례로서 당시 새로운 거주생활에 대응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으며, 진입공간의 설정수법은 입안자의 수준 높은 미적 안목을 짐작케 하며, 계단을 오르면서 사랑채와 안채를 분리하여 공간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특징이 있으며, 관리도 잘 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8.

전라남도지사

〈별첨 3〉

## 의견서

방촌마을은 총 106세대 246명(남 117, 여 129)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95호(90%)가 “장흥위씨”로 집성촌을 이룬 마을로

죽헌고택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전남 전통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솟을대문이 없는 점, 집에 누각이 없는 점 등 방촌마을 양반가의 특징을 잘 간직한 집으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존재고택이 중요민속문화재 제 161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도 위성탁 가옥(민자 제7호)· 위성렬 가옥 사당(민자 제38호)· 위봉환 가옥(민자 제39호)이 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음

원래 이 가옥은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위성릉 가옥으로 명명되었으나, 학계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 특징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사망 또는 이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 고택을 중창하신 竹軒 魏啓昌(1900-1944)선생의 호를 따서 竹軒古宅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죽헌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방촌의 기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방촌마을전체를 박물관화 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고자 함

2010. 1.

장흥군수

#### 〈별첨 4〉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내용

##### 1. 문화재 가치 등 (조사자 및 검토자 의견)

###### 가. ○○○

1) 이 가옥의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대문칸에서 중문칸으로 오르는 계단이 매우 이채롭다. 계단을 오르면서 좌측의 사랑채와 꼭대기의 안채의 분리역시 공간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재미있는 수법이다. 사랑채의 경우 전면에 설치된 차양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된다. 안채와 사랑채 사당, 모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으며, 건물의 보존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평가된다.

2) 근대에 지어진 주택일지라도 독특한 외부공간 수법과 차양간을 통해서 이 건물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평가 : 중요민속문화재로 승격

###### 나. ○○○

1) 전체 공간구성과 세부에 있어서 모두 일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가운데 대문과 중문사이의 공간을 담장으로 명확히 구획한 진입공간의 완성도가 탁월하다. 진입공간을 담장으로 구획하는 수법, 그리고 진입공간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진입동선이 분기되는 수법(일종의 현관기능)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입공간의 규모나 그 규모에 알맞은 정원,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중문칸까지 계단을 따라서 점증적으로 고조되는 공간 처리는 다른 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2) 외레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의식이 엿보인다. 이는 사랑채의 일본식 정원, 부속 화장실 등에서는 확실히 감지할 수 있다.

3) 사랑채의 차양간은, 가옥이 서향으로 자리 잡은 관계로, 여름철 오후 뜨거운 일사를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차양간 자체는 우리나라 주택에서는 흔하지 않은 사례이며, 특히 본가옥의 차양간은 기와를 얹은 내림지붕이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4) 일정한 수준을 상회하는 20세기 초기 남도지방의 반가/부농의 주택사례이다. 당시 새로운 거주생활에 대응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으며, 진입공간의 설정수법은 입안자의 수준 높은 미적 안목을 짐작케 한다. 비교적 최근 작례이긴 하지만, 완성도를 감안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추천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다. ○○○

1) 문화재 명칭이 당초 도 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라 <장흥 위성용가옥>으로 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와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명칭 기준안에 따라 건립 당시 인물(죽헌 위계창)의 호를 넣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포함하여 <장흥 죽헌 고택[정사]>로 명칭을 삼는 것이 바람직함.

##### 2. 심의의견

가. 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가치 있음.

2006. 8. 24

####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문화재위원 ○○○(서명)

# 보고 사항

##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중요민속문화재 제137호 “제원 박도수가옥” 내 체험시설 정비공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제원 박도수가옥 (중민제137호)	충북 제천시	○○○	<b>(체험시설 정비사업)</b> ○ 위치: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305번지(문화재 구역 내) ○ 허가사항 -도배, 장판, 재래식 부엌 및 보일러 보수 등 -화장실, 세면실 내부 리모델링 -담장 및 마당 정비 -협문 초가지붕 정비 -뒤틀마루 복구 등 ○ 참고사항 -당초 배수로정비, 야외쉼터 조성 등 계획되었으나 협의 과정에서 사업제외함	조건부 허가	'11.08.01

###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